



남가주밀알선교단이 밀알의 밤 행사로 모금된 16만 달러를 10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이 땅의 밀알 102명에게 16만 달러 장학금 전달

남가주밀알선교단 14년간 165만 달러 나눠

밀알 장애인 장학 복지금 16만 달러가 102명의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남가주밀알선교단은 2001년 이래 매년 장학생 100여 명을 선발해 학업을 격려해 왔다. 장애우들을 섬기는 단체가 사역에 있어서 타 단체의 도움을 일반적으로 받기보다 오히려 앞장서서 남을 돕는 모습은 교계에 매년 큰 도전을 주어 왔다.

올해에는 제16회 밀알의 밤을 통해 16만2400달러의 장학금을 모금했으

며 장애인 장학생 14명, 근로복지생 5명, 꿈나무 장학생 38명, 한국 장학생 10명, 제3국 장학생 15명 등을 포함해 총 102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장애인 장학생에겐 3600달러, 근로복지생에겐 3600달러, 꿈나무 장학생에겐 1000달러, 한국장학생에겐 1000달러가 수여됐다. 제3국 장학생들은 필리핀, C국, N국, 웨스트 사하라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2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지급된다.

장학금 수여식은 1월 20일 오전 11시,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에서 열렸다.

남가주밀알선교단은 지난 10월 가수 소환을 초청해 밀알의 밤 행사를 열어 23만2643달러를 모금했고 광고 및 행사 비용으로 6만3727달러를 지출하고 16만8915달러의 실질적 수익을 얻었다. 한편, 2001년 이래 남가주밀알선교단이 지출한 총장학금액은 165만8000달러에 달한다. 김준형 기자

예배에 참석만 해도 범죄율 줄어든다

신앙 나누는 행위가 친사회 규범 강화해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범죄와 일탈적 행동을 저지르는 경향이 적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박사 과정 중인 마크 리틀러(Mark Littler) 씨는 지난해 7월 18~34세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으며, 영국 주요 종교에 속한 젊은이 103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다. 이 가운데는 기독교인(가톨릭과 개신교), 무슬림, 힌두교인, 유대인 등이 포함됐다.

연구는 쓰레기 투기, 수업 불참, 불법적인 약물 복용, 무임 승차, 도둑질, 음반 불법복제, 폭행, 재산 피해 등의 사례를 조사한 것이다.

리틀러 씨는 “예배에 참석하는 행동은 특정한 형태의 범죄와 일탈에 연루되는 경향을 눈에 띄게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 결과들과 더불어, 나의 연구 결과는 동료 신앙인들과 더불어 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공식적인 예배와 상관 없더라도 신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거나, 신앙을 나누고 있는 가족·친구들과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통해서도 그러했다. 중요한 점은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가 가능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도둑질, 불법적인 약물 복용, 음반 불법복제 등의 활동은 대부분 예배 참석 빈도에 반비례했다. 그러나 이보다 심각한 범죄의 경우, 중요한 패턴을 보여주지에는 수집된 사례의 수가 너무 적었다.

리틀러 씨는 “이러한 결과는 영국의 종교적인 삶에 대해 긍정적인 그림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들이 무신론자들을 잠재울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종교적인 훈련은 단순히 그들의 관계성 중심에 있는 친사회적 행동 규범에 노출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세속적인 다른 활동들 역시 동일하게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빌힐채리티블트러스트(Bill Hill Charitable Trust)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곧 출판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진행될 두번째 연구에서는 종교적인 훈련을 하는 신앙 그룹 간의 차이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리틀러 씨는 세속적인 활동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지 않았으나, 당장 이를 분석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친동성애적 PCUSA 탈퇴한 보수교회들 괄목할 성장

동성애자 성직 허용에 반대하며 미국장로교(PCUSA)를 탈퇴한 교인들이 창립한 새로운 보수 장로교단이 회원교회 수가 급증하면서 ‘세 자리’ 수가 넘는 규모의 교단으로 성장해 미국 장로교의 새로운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로교복음주의연합회(ECO: Evangelical Covenant Order of Presbyterians)는 2년 전 PCUSA가 동성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성애자들도 성직에 임명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교단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반발해 탈퇴한 보수 교인들이 모여 출범한 신생 보수 장로교단이다.

ECO는 작년 말 총 107개 교회, 176명 목회자의 규모로 성장됨을 보고했으며, 교단 가입을 원하는 교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지지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ECO는 이 같은 성장을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milestone)”이라고 자축하였다. PCUSA의 헌법 개정 이래로 많은 회원 교회들이 교단의 세속주의화에 유감을 표하며 탈퇴를 선언했으며, 이 중 많은 교회들이 ECO를 대안

으로 선택했다.

콜로라도스프링스 제일장로교회와 달라스 하이랜드파크장로교회 등 PCUSA의 유명 교회들도 이 같은 대열에 합류했다.

PCUSA는 2014년 현재 회원 교회 수 10,262개로 여전히 미국 최대의 장로교단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는 있으나, 2012년부터 매년 평균 5~6%의 교세 감소를 경험해 왔다. 이는 교단 창립 이래 가장 심각한 교세 감소로 분석되고 있다.

손현정 기자

OC교협, 장경동 목사 초청 영적 각성 집회

오렌지카운티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영적 각성 집회를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나침반교회에서 연다. 강사는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교회 부흥은 이 시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교회 연합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미국의 영적 도덕적 윤리적 타락 문제를 회개하기 위해 이 집회를 계획했다.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저녁 7시 45분에, 28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집회가 있다. 마지막

날인 29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장경동 목사와 김우곤 목사를 초청해 목회자 세미나를 연다. 주제는 “왜 이 시대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가?”이다.

문의) 562-691-0691

김내래 기자



장경동 목사

나라정비 ASE 유압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www.sarang.com **기독일보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2014년도 표어:
“1111 Blessing Street : 축복을 유통하는 교회 - 한 영혼, 한 다락방, 한 훈련, 한 사역”

주일예배 [본당 및 킹덤드림센터(KDC)]
 ■ 1부 오전 7시 30분 (본당) ■ 2부 오전 9시 10분 (본당 및 KDC)
 ■ 3부 오전 11시 10분 (KDC) ■ 4부 오후 1시 10분 (본당)

HolyWave English Worship (본당)
 3부(오전 11시 10분)
 3부 시간에 드려지는 HolyWave English Worship은 믿음의 차세대들이 이민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예배입니다
 www.holywave.sarang.com

청년·대학부
 ■ 청년부: 오후 3시(본당) ■ 영어청년부(NEXT):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사랑채플)
 ■ 한어대학부: 오후 3시(KDC) ■ 영어대학부: 오전 11시 (은혜채플)

교회학교 주일 2, 3, 4부 예배시간에 함께 진행됩니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20분 / 토 오전 6시 20분
 매달 첫 토요일전예배: 오전 6시 20분 (이중 언어로 진행)
AWANA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체육관)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KDC)
사랑부 발달장애우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 10분, 오후 1시 10분 (112호)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Sa-Rang Community Church Rev. Chang Soo Ro, Sr. Pastor

■ 본당 :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킹덤드림센터(KDC) : 1990 W. Crescent Ave., Anaheim, CA 92801
 ■ Tel. 714-772-7777 / Fax. 714-772-0777 / e-mail: church@sarang.com

제36대 OC목사회, 신뢰와 섬김으로 출발

OC목사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및 신년하례식 열려



제36대 OC목사회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리며 한 회기를 힘차게 시작했다.

제36대 OC목사회(회장 김영찬 목사)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및 신년 하례식을 19일 오후 4시 갈보리선교 교회(심상은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취임인사를 한 김영찬牧사는 "회장직을 맡기 전에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 한 해 신뢰받는 목사회가 되도록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축사를 한 OC교협 회장 민경엽 목사는 "교회의 어려움은 사실 내부적

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36년 된 목사회가 새롭게 출범하려는 이때에 먼저는 내부적으로 건강하게 서서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알고 행하는 제자"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박상목 목사(OC목사회 자문위원)는 "요즘 많은 교회에서의 설교를 보면 죄에 대한 지적이 없고 도전과 찔림을 받지 않는다.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회개인데, 회개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다"며 "지극히 낮은 곳

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복음을 실천하는 목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예배는 목사회 EM담당 부회장인 찰스 김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이임인사에 신종은 목사, 취임인사에 김영찬 목사, 축사에 민경엽 목사·스티브 황보 장로(라팔마시 시장), 격려사에 이처권 목사(OC원로 목사회 회장), 신년사에 박용덕 목사(OC교협 이사장)가 참여했다.

토마스 맹 기자



김태권 목사가 충현선교교회에서 하나님의 꿈을 주제로 신년성회를 이끌고 있다.

이민자들이여! 용서의 요셉을 닦자

"요셉의 머리 속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과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순종한 것이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김태권 목사가 충현선교교회 신년부흥회에서 첫날 요셉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김태권 목사(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는 16일 저녁에 요셉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성도들에게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길 당부했다. 김 목사는 "성경에서 요셉은 고난의 구렁이에서 빠져나온 성공의 대명사"라며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붙들었던 요셉과 같이 꿈을 이루어가는 이민자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

을 잘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한 것은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의 비전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통해 성취된다. 요셉이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종살이 했던 것같이,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셉은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다.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모습"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태권 목사는 "형들이 자기들의 죄로 두려워하니깐 요셉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며 형들을 용서했다"고 말하며 "요셉이 예수님을 보여준 표본은 '용서'다. 이 요셉을 닦아가자"며 말씀을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십일조는 '신앙'



신년목회자 세미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님 사랑, 온전한 십일조"를 주제로 신년 목회자 세미나가 20일 미주 복음방송 세미나실에서 남가주교협, OC교협 주최로 열렸다. 이날 강사로 고송희 목사(아름다운교회), 오석환 목사(오이코스선교회), 민 킴 행장(오픈뱅크)이 초청된 가운데, 40여 명의

목회자 및 사역자들이 참석했다.

고송희 목사는 "십일조의 성경적 원리와 적용의 문제점들"이란 주제로 강의를 이끌었다. 고 목사는 "물질을 구별해 따로 떼어놓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이라며 "십일조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십일조는 수학적으로 볼 때 10%이지만 도덕적으로 보면 빛이며, 경제적으로 보면 투자이고,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십일조는 반드시 '온전한 십일조'이어야 하는데 온전한 십일조는 청지기 원칙, 하나님 주권의 원칙, 거룩의 원칙, 심은대로 거두는 원칙 등을 따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오석환 목사는 "감사로 드리는 축복"이란 강의를 전했고 민 킴 행장은 "십일조를 통해 크리스천 은행으로 변화된 오픈뱅크"를 강조했다.

토마스 맹 기자

트라우마의 바른 이해와 치유 워크샵

풀라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주최로 "트라우마의 이해와 치유" 워크샵이 18일 열렸다. 워크샵 강사는 한국평화교육훈련원 부원장 서정기 박사가 초청됐다.

서 박사는 이날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편견으로 스트레스 치유는 의학 또는 심리학 전문가들의 치료 영역이다 스트레스 치유는 과거의 상처에 대한 것이지 미래에 대한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스트레스는 개인 의지의 문제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 해결 가능한 문제다 등을 들었다.

이어 서 박사는 "트라우마는 우리의 통제력 상실, 무기력과 위협의 경



서정기 박사

험에서 나온 심리 정서적인 상처"라며 "트라우마는 위협에 대응하는 인간의 기본적 능력이 압도당했을 때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서 박사는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치유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치유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정이다 △치유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기관, 공동체의 문제다 △치유를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함께 치유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맹 기자

	SF코팅으로 더욱 더 고급스러워진 HD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전후방 또는 실내를 항시녹화
	영상 보정 기능으로 정확한 영상 분석/LCD 영상 재생/확대보기 기능
	고성능 GPS 센서 내장/ 속도, 위치, 시간, 방향까지 확인
	Battery 방전 방지 시스템
구입문의 : Joseph Park 213.235.7836 www.carblackboxstore.com 310.902.3944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기독교일보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굿네이버스는 기독교일보와 함께 제3세계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을 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5세 이하의 아이들 100만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양제 한병과 약간의 식량이면 허무하게 끝나가는 이 생명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이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굿네이버스 친선대사 최수중 드림



당신의 나눔만이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후원문의 1-877-499-9898 www.goodneighbors.org

굿네이버스는 UN의 최고 고문기관으로써 1991년 한국인이 설립하여 전세계 32개국에서 구호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선교사 파송 '불균형' 여전해 선교 전략 수정 '불가피'

전방개척지역에선 전통적 교회론보다 하나님 나라로 접근해야



KWMA와 미전도종족선교연대(UPMA)가 발행한 전방개척 선교지도. ©미전도종족선교연대

한국교회가 여전히 복음주의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 선교사를 내보내는 등 불균형적인 선교사 파송 및 중복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나타났다.

최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발표한 개척지수별 선교사 현황에 따르면, 한국교회는 일반선교지역(General Missions) 중 복음주의자 비율이 15.5% 이상인 G2 지역, 복음주의자 비율이 10~15.5%인 G1 지역에 각각 7,647명, 3,455명을 파송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KWMA가 산정한 2030년까지 이 지역에 필요한 한국선교사의 184.3%,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G2 지역은 벌써 과잉상태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전방개척지역(Frontier Missions) 중 복음주의자 비율이 5~10%인 F1 지역, 0~5%인 F2 지역, 0~5%이면서 기독교 박해지역인 F3 지역에는 각각 4,564명, 6,034명, 5,003명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는 2030년 대비 파송율의 20.5%, 60.9%, 8.5%로 선교사가 가장 많이 필요한 F3 지역에서 선교사 부족 현상이 여전히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개척지역 중에서도 국가별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F1 지역에 소속된 11개국 중 동북아·X국은 한국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로, 동북아 X국 선교사(4,169명)를 제외하면 나머지 10개국에 불과 395명의 선교사만 내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즉 전방개척선교 지역에도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것이다.

F2 지역에 속하는 41개국 중 역시 한국교회 10대 파송국인 일본(4위

1,480명), 태국(6위 781명), 러시아/연해주(8위 618명), 캄보디아(9위 603명)를 제외하면 나머지 37개 국가에 2,552명(평균 69명)이 파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F3 지역은 총 43개국 중 10대 파송국인 인도(5위 963명), 인도네시아(7위 682명)를 제외하면 나머지 41개국에 3,358명(평균 82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형선교개발원 대표인 조명순 선교사는 "일반선교지역(G2, G1)과 전방개척지역(F1, F2, F3)의 선교사 비율은 각각 41.6%, 58.4%로 전방개척지역의 선교사들이 더 많다"며 "그러나 필요한 선교사 측면에서 본다면 G2 지역은 선교사 재배치가 시급하며 전방개척지역에 보다 적극적인 선교사 파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작 필요한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지 못하는 현상은 '개척지수별 추이 현상'에서도 확인됐다. KWMA가 2009년, 2012년 자료와 비교, 분석한 통계에 의하면 전방개척지역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2009년 13,326명→2012년 14,995명→2013년 15,601명)하는 긍정적인 현상도 보였지만, 일반선교지역으로 나가는 선교사 역시 증가(2009년 8,804명→2012년 10,670명→2013년 11,102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대비 증가 선교사(이중 선교사 포함 1,038명)도 58.3%(606명)가 전방개척지역으로 파송됐으며, 나머지 41.6%(432명)는 일반선교지역에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선교사 수가 과잉된 G2 지역은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가 증가(31.89%)한 것으로 나타나 선교사 불균형 파송이 여전했다.

조명순 선교사는 이런 현상에 대해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은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사역의 종류와 범위가 훨씬 다양하여 선교사들이 나가기 용이하다"며 "반면 전방개척지역은 열악한 선교 환경으로 사역에 제한도 많고 지원자들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선교사 불균형 배치와 중복투자 등이 일어난 여러 원인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단 선교부, 선교단체 등의 정책과 전략에 의해 선교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개인이 선교지와 사역을 선정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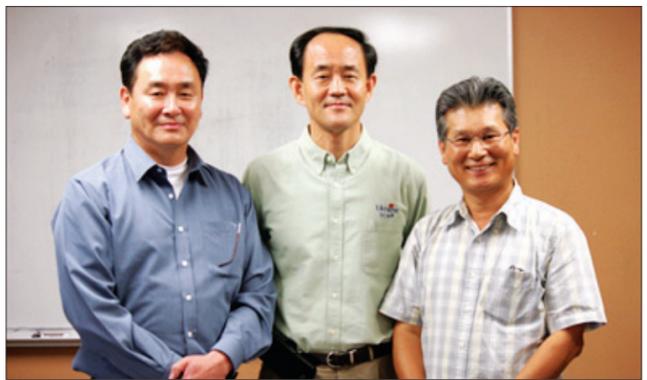
전방개척선교 전문가인 K선교사도 한국 선교사의 편중 현상에 대해 "한국교회와 개인이 시대적인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 서구 기독교의 선교 구조와 교회론 등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선교사는 "우리는 서구 교단 중심의 구조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여기에 이미 익숙해 있다"며 "교회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 속에서 교회개척에 대한 선교 목표와 방향성이 설정돼야 하는데, 우리가 경험했던 서구 교회론을 주로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인 전방개척지역에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니 당연히 사역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방개척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교회론적 접근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며 "지난 5년 전부터 북미, 한국 등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는 전방개척선교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선교적 교회는 전통교회 구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선교의 대행자로서 교회의 존재 양식을 발견하려는 운동이다.

K선교사는 또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선교의 출발점 자체가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하는가'에 있지 않고, 내가 경험했던 사역 구조와 종류, 심지어 나의 달란트(재능)를 어디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며 사역지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가 경험해 온 익숙한 구조를 가진 기독교 국가로 가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선교사 훈련에도 변화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좌부터) DCMi 선교회 이두재 목사, 정태희 교수, 임상순 목사.

미얀마 복음 전도대회

연 인원 3만여 명 대규모 집회로 열려

지역교회 출석률 30% 이상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10월 미얀마 양곤지역에서 대규모 복음 전도대회를 열었던 DCMi(David Chung Ministries International) 선교회 대표 정태희 교수는 선교 보고를 하고 미얀마 선교에 동참한 워싱턴주 각 지역 교회에 감사사를 표했다.

정 교수는 "미얀마 복음 전도대회는 126개 교회 목회자들이 연합해 연 인원 3만여 명이 모인 대규모 전도집회였으며, 미얀마 역사상 가장 많은 교회가 연합했고, 미얀마 복음 전도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보고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미얀마 복음 전도대회 이후 각 지역 교회의 출석률은 30% 이상 증가되었으며, 미얀마 기독교회가 결집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매일 1만여 명이 모여 설교를 들었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한 성령으로 인해 모두가 마음이 뜨거워졌다"며 "대회 기간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역 모두에게 알리는 놀라운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복음 전도대회가 열렸던 기간은 미얀마의 우기로 강수량이 가장 많

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기간 비가 내리지 않았다. 게다가 양곤 시내에 폭우를 동반한 번개가 칠 때도 대회 장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정태희 교수는 "미얀마 136개 종족 가운데, 지배종족인 버마족의 복음화율이 0.2%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것도 우기에 전도 대회를 한다고 하니 불교 승려들은 크게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조롱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복음 전도대회는 미얀마와 그 땅의 젊은이들과 교회가 회복되는 소중한 사역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 교수는 3월 또 다시 미얀마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 인도를 위해 양곤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CMi는 페이스 복음주의 신학대학·대학원 교수인 정태희 목사가 대표이며 미전도 지역의 리더를 양육해 교회를 견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DCMi는 건강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더 나아가 도시와 국가를 변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 브라이언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알뜰히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유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icare, WIA, Childicare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미와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연속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주민 76% 찬성한 동성결혼 금지법 오클라호마 주에서 폐기

제10순회 항소법원의 유타 주 판결 따라 오클라호마 주도 효력

14일 오클라호마 주 연방지방법원 이 이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이라 판결했다. 오클라호마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 역시 2004년 주민 75.59%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법이었다. 주민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법에 대해 법원이 노골적으로 위헌이라 판결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동성결혼 문제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례들로 미루어 볼 때 오클라호마 주에서의 이번 판결도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이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이 판결을 내린 테렌스 칸 판사는 “동성결혼 금지법이 수정헌법 14조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도 판결의 효력을 보류시키고 항소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리

겠다고 한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최근 유타 주에서도 연방지방법원이 주민투표로 제정된 법을 뒤집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지만, 단 17일 만에 연방대법원이 그 효력을 중지시키고 항소법원에서 이 문제를 재심하게 됐기 때문이다. 당시 유타 주 연방지방법원은 상급 법원에서 당연히 동성결혼의 손을 들어줄 줄 알았지만 의외로 연방대법원이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이 문제는 유타 주를 관할하는 제10순회 항소법원에서 다루게 되는데, 오클라호마 주 역시 이 항소법원의 관할을 받기 때문에, 오클라호마 연방지방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봤자, 유타 주와 관련된 항소에서 판결이 뒤집

혀 버리면, 오클라호마 주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방대법원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투표로 직접 결정한 법을 위한 처리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일일 수밖에 없다. 결혼보호법을 위한 판결하던 2013년 6월 당시에도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52.5%가 찬성한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한 판결하지 못하고 다만 심리를 가각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유타 주에서 주민 66%가 찬성한 법이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뒤집혔고 이번에는 무려 76%가 찬성한 오클라호마 주의 법까지 뒤집히고야 말았다.

김준형 기자

영국성공회-그리스정교회 수장 “박해 우려” 공감대

“신학 교류 지속하며, 공동의 증거자 되자” 다짐



영국성공회의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왼쪽)와 그리스정교회 바르톨로뮤 총대주교(오른쪽)의 모습. ©람베스궁

영국성공회의 수장인 저스틴 웰비(Justin Welby) 캔터베리 대주교는 지난 13일 그리스정교회의 대표 바르톨로뮤(Bartholomew) 총대주교와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교회의 지도자들은 특히 중동 지역의 크리스천들이 겪는 핍박에 대해 높은 우려를 표했다.

바르톨로뮤 총대주교는 환영사에서 “이번 만남을 통해 그리스정교회와 영국성공회 상호간 사랑의 연대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 순간, 우리는 특히 중동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한다. 이들 앞에 놓인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실제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르톨로뮤 총대주교의 초청으로 터키 이스탄불에 머물렀던 저스틴 웰비 대주교는 동-서교회의 화합을 위한 총대주교의 노력과 그의 프란치스코 교황 취임식 참석 등을 언급한 뒤, 그를 ‘정치적 평화와 화합의 표본’이라고 칭찬했다.

이 만남에서 웰비 대주교는 “이 같은 화합은 매우 기쁜 일이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모두가 하나되어 세상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간의 대화를 마치고 총대주교의 환대에 따뜻함을 갖고 영국으로 돌아가, 더 위대한 일치와 친밀한 교계에 새롭게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웰비 대주교는 또한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지만, 예수 그리

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오는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회동은 매우 우호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성공회와 정교회는 친밀한 관계성 유지와 지속적 신학 교류의 중요성, 세속적·다원주의적으로 변화하는 세상, 특히 유럽에서 공동의 증거자가 되기 위한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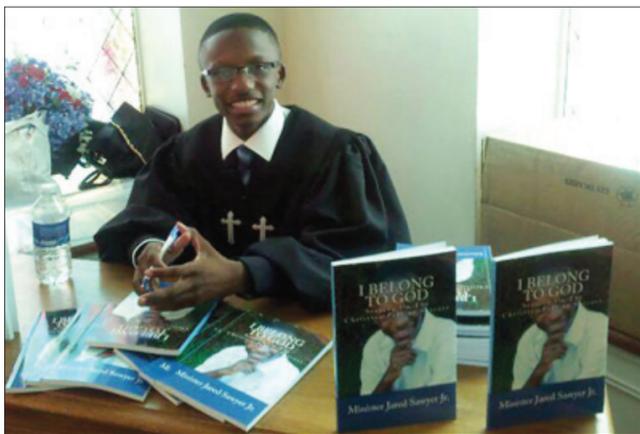
성명서는 이어 “두 사람은 세상 곳곳에서 발생하는 불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가난한 자와 압제당하는 자, 전쟁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 전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특별히 중동을 위해 기도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 더 나아가 인간 권위와 종교적 권리의 기독교적 가치와 더불어, 환경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교회는 1973년 이후 공식적인 대화를 해오고 있으며, 과거 ‘성공회-정교회 신학 교류를 위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Anglican-Orthodox Theological Dialogue)’가 3가지 합의문을 발표했었다.

이 위원회는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관련한 4번째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에는 ‘결혼에 대한 기독교적 가르침과 환경을 위한 인간의 책임’에 대한 숙고도 포함될 계획이다.

강혜진 기자

신학공부 안한 10대 목사 등장에 美 교계 시끌



16세에 부목사 임명을 받은 제러드 소이어. ©Jared Sawyer/Facebook

미국에서 10대 소년인 부목사로 임명받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 교인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조지아 주(州) 애틀랜타에 거주하고 있는 올해 16세의 제러드 소이어 주니어는 지난 주말 자신이 다니고 있는 센터힐침례교회의 부목사로 임명받았다. 이미 11세부터 이 교회에서 설교를 전했던 그는 이 때 자신의 이름을 건 사역단체를 창립해 현재까지 대표로 일하고 있다.

제러드의 부모에 따르면 그는 2살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5살에 침례를 받았으며 목회자가 되고 싶

다는 꿈을 밝혔다. 그의 어머니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날이 정말 올 줄은 몰랐다. 우리 아들이 자신이 부름받았다고 믿고,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다니 감사하다”며 감격을 전했다.

제러드의 부목사 임명 소식은 방송과 인터넷, SNS를 통해 미국 전역으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반응은 그의 재능에 감탄하며 축하를 표하는 이들과,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들로 나뉘고 있다.

또한 특히 많은 기독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목회자가 정규 신학 교육

과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WSB-TV의 제러드와 관련한 페이스북 게시물에 메리언 모리스라는 네티즌은 “나는 그의 야망을 좋게 평가하지만 그는 먼저 신학을 공부하거나 신학교에서 학위를 따야 한다고 본다. 설교를 하려면 신학적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위에는 무능력하면서 스스로를 목회자라 칭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글을 남겼다. 일부 비판하는 이들은 그가 11세부터 자신의 교회 강단에 섰다는 사실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생각이 다른 이들도 많다. 테니스 베이츠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응답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서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신학교가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현재 제러드는 때가 되면 모어하우스 칼리지로 진학해 신학과 종교학을 전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제러드는 “오늘 내 삶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 내 사역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 하나님께서 16년의 내 인생과 11년의 내 사역 기간 날 축복해 준 모든 이들을 축복해주길”이라고 전했다.

손현정 기자

HEAVEN EARTH TRADING Import & Wholesale
www.uslahealth.com
213)386-3585
SANSAM
산삼(인디언이캔야생산삼) 모든 건강식품
매실/홍삼제품 한약제품
Vitamin 각종 즙
(LA 한남채인내)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지긋지긋한 당뇨병 타복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체질의 인슈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PRO-Z
PNC
PRO-Z
Glucose Control
Clinically proven to stimulate glucose metabolism
60 capsules
Made in U.S.A.

신제품 소비자 공급가 \$76
*한국에서는 \$145에 판매중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복용시 체중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슈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에 인슈린 분배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621 S. Virgil st. Suit260
Los Angeles CA 90005
213.434.1170

온유한 자의 복

마태복음 5: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온유란 말의 뜻은 따사로운 온(溫), 부드럽게 유(柔)를 사용하여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의미입니다. 이 온유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한 모습으로 겸손이라는 말의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이 손을 모으고 상대방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의지적인 굴복을 말합니다.

온유는 영어로 gentleness(젠틸니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사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사적인 성품은 불의나 악의, 역지가 전혀 없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 받고 구원 얻기 위하여 신령한 소망의 복을 얻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세 중에 온유해야 한다고 하신 이유는 거역하기를 일삼았던 마귀들에게 오랜 세월을 붙잡히고 이끌려오느라고 마귀의 강박한 성질이 우리에게도 많이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고 완악하고 강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게 되는 태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인연을 원하지 않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길을 동행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 온유한 성품으로 진리의 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 승리는 성도의 반열에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복종할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을 갖추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절대자로 알게 되고 그분의 절대적인 명령에 개인적인 이유나 변명, 불평을 하지 않고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한 결과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듣기 전에 목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아멘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순종하여 왔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16:11-14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은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 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하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했습니다. 열 여섯명의 아들 중 용모는 빼어났지만 절름발이였던 그는 그의 형제들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대군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쳐들어갔습니다. 압살롬이 아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소리를 전해들은 다윗은 신발 신을 여유도 없이 뒷문으로 빠져나와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밧세바로 인해 하나님 앞

에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대 왕인 사울의 집 족속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사무엘하 16:5-8을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립에 이르러 매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 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되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고 말하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왕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취한 태도에 온유라는 말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스루야의 아들들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시켜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근본적으로 회개하도록 설리하시는 뜻으로 다윗은 받아 들였습니다. 다윗의 태도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이 다 시금 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다윗이 그의 성질대로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했다면, 그의 왕권은 되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온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아 놓은 자기 자리를 다시 되찾게 보장받은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온유한 자의 몫으로 예비해 두신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기의 몫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보잘것없는 자가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돌을 던져도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하시는 영적 교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죄를 거짓말로 피하려 하고 남에게 전가시키려할 때 죄는 점점 더 그 사람의 숨통을 죄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를 충분히 깨닫고 누워침으로 죄로 인한 결과를 책임지려고 회개하고 고백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54-58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고 한 스테반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는 설교였습니다. 만약,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 들였다면 스테반의 설교는 많은 영혼을 회개시키는 성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자신의 고통은 생각지 않고 주님이 자신의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해 팔을 벌리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궁극적 소망을 그는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하고 돌로 자신을 때려 죽이려 했던 자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했습니다. 스테반의 이런 모습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혈기나 감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테반이 보여준 온유의 모습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근본적으로 회개하기 위하여 온유의 성품을 보인 것과는 달리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고 그 뜻에 순순히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4:14-18에 "우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

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졌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2,3차 전도여행을 한 과정을 볼 때 환영과 대접, 사랑과 존경을 받은 적도 많지만 말할 수 없는 고충도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리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알렉산더라는 자가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으나 바울은 그에게 직접 원수 갚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사명완수를 위한 사도 바울의 인격적 온유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졌느니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2:17-21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도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하셨습니다. 스스로 원수와 부딪혀 해결을 보자고 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온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의 철저한 회개를 위한 온유함과, 스테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 뜻에 순복하는 슬기로운 온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원수 갚는 것을 온전히 주께 맡기는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지혜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온유한 믿음으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AM1190 LA 미주 북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과목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 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x+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업길잡이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or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스포츠선교학 박사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담임목사 청빙

시카고 북서 교외에 자리한
가나안 교회에서
2대 담임목사님을 모집한다



자격 조건:

1. 정규 신학대학원의 M.Div 학위 이상 취득하신 분
2. 한/영 이중언어 가능하신 분
3. 이민교회에서 담임 혹은 부목사 경험 있으신 분
4. 50세 미만

구비 서류:

1. 가족사진이 포함된 이력서
2. 신앙 및 목회 소명서
3. 설교테이프 2개
4. 추천서 2

제출 기한:

2014년 2월 28일까지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고, 개별 통지합니다)

보낼 곳

Canaan Church
1250 Radcliffe Rd. Buffalo Grove, IL 60089
전화(847)873-1380 팩스 (847)873-1381



가나안 교회

1250 Radcliffe Rd. Buffalo Grove, IL 60089

바나바는 착한 사람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를 당시의 대표적인 교회로 부흥시켰다.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면서, 바나바는 바울과 1차 전도여행 때 불법 이탈을 하였던 마가의 동행문제를 계기로 논쟁을 겪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마가를 동행시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착한 입장으로 바울과 갈등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잘도와 그가 마가복음을 남기고 이집트 콤텍교회의 최초 지도자가 되는 훌륭한 업적을 남기도록 만듭니다.

바나바의 착한 마음은 사람을 발굴하고, 키우고, 배려하면서 지도자로 세우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발을 판 돈을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귀중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도들이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친척이나 교제를 요청하는 사람에게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의를 가지고 이웃에게 접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후원하는 자였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2014년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 바나바처럼 주연 못지 않은 제자, 주연을 더욱 빛나게 하는 제자로 주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길 기원합니다.

ment)이라는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며 권면하는 것이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그의 착한 마음은 무엇보다도 미래의 교회 지도자 바울에 대한 헌신과 사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사도들의 파송으로 안디옥 교회를 사무하게 됩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하여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혼자 교회를 섬기면서도 목회자 효과적이었지만,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불러서 동역의 손길을 내밀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수고는 곧 안디옥 교회

참치와 가자미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것이 곧 끝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참치처럼 넓은 세상이 좁게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자미처럼 넓은 세상이 하등 필요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치는 넓은 바다에 살며 그 바다를 모두 활용합니다. 넓은 바다가 곧 자신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자미는 넓은 바다가 한없이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자신이 삶의 터전으로 여기는 자리 이외는 거들떠 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꿈을 마음껏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마냥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큰 것을 말하고, 아무리 넓은 것을 말해도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크고 넓은 것이 사람에게 꼭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넓고 광활하게 창조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고기가 모두 가자미와 같다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그렇게 넓고 깊게 만드실 필요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참치형 인생인가? 가자미형 인생인가? 삶의 두 유형 중 당신의 삶은 어떤 유형인가요?

참치라는 물고기를 아십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투나라' 이름이 더 익숙한 물고기입니다. 덩치가 큰 놈은 몸길이가 무려 3미터나 되기도 하고, 몸무게는 680kg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빠르게 헤엄칠 때는 시속 160km이상의 속력을 내는 바다 속의 경주자입니다.

참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헤엄을칩니다. 다른 물고기와는 달리 아가미를 열고 닫는 근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치는 자신을 스스로 움직여 바다물이 아가미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산소를 흡수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헤엄을 멈추면 그 순간 참치는 질식사해서 죽습니다.

참치는 잠을 잘 때도 뇌만이 쉼 뿐 몸은 움직여 헤엄을칩니다. 참치는 헤엄을 멈추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에 참치는 넓은 바다를 필요로 합니다. 참치는 넓은 바다를 결코 넓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 가자미라는 물고기는 참치와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모양이 납적해서인지 물고기 치고는 헤엄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바다 밑 모래 속에 은신해 있거나, 파도치는 대로 밀려다닙니다. 헤엄을 친다기보다 떠다니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 모르

니다. 눈 앞에 먹이가 나타나야 겨우 몸을 움직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맞는지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가자미는 그렇게 넓은 바다에 살아도 가자미의 바다는 웅덩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참치와 가자미. 우리에게 묘한(?) 교훈을 줍니다. 참치처럼 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자미처럼 매사에 수동적이며 소극적이기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24시간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를 끊어서는 안됩니다. 영적 교류가 끊어지는 순간 삶의 의미는 상실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참치가 헤엄을 멈추면 끝이라고 여기기에 헤엄을 멈

기도의 엔진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야 말로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야 할 때이고 평소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이다. 기도 없는 부흥이 있을 수 없고 기도 없는 열매는 결코 좋은 열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오래 전부터 기도를 교회 사역의 큰 중심 중의 하나로 생각해 왔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는 많이 없는 기도사역위원회라는 부서도 만들었다. 기도는 개인적으로도 해야겠지만 교회적으로 적극 힘써야 할 일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초대교회에서 기도에 전혀 힘쓰던 120문도가 있었던 이유도 그런 것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년을 시작하며 기도의 허리띠를 동어는 의미로 기도의 120문도를 다시 재정비하고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의 엔진이 활발하게 돌아갈 때 교회 전체가 성령의 열기로 훈훈하게 되고 교회의 사역도 순직하게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올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개인과 가정, 교회 모두 기도의 엔진이 쉼 없이 돌아가 모든 일에 좋은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이다. 언뜻 역설적으로 들리는 말이지만 기도와 일을 병행해 본 사람들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한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의지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분주히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의미있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할 일이 많아 마음이 바쁘더라도 그럴수록 더욱 더 기도할 때에 하는 일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기도와 일의 상관관계는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기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해야 할 과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이다. 그런 의미에서 할 일이 많은 금년 이

세계 최초! 최대! 음이온 매트 초강력 음이온 매트!

닥터-니온스 초당 850만개 영구적 음이온 생산

Dr-NIONZ™ DOCTOR NEGATIVE ION ZONE

세계 최고 신비의 음이온 실리온 매트
음이온은 혈액을 정화하여 혈액순환을 높여줌
● 운동 원치 및 면역력을 강화함
●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함
● 피로회복과 집중력을 높여줌
● 1 초당 850만개의 음이온이 지속 영구적 생산되어 숨이나 복호수보다 많은 음이온을 제공합니다.

\$99 LARGE

Dr-NIONZ Tourmaline Mat Generates 0.06 mA & FIR Far Infrared Rays.
● Approximately 3,000 negative ions per cubic centimeter per second.
● Total generates over 8.5 million negative ions per second.
● Non-Toxic / Allergy Free Silicone / Washable

100% 히트 상품!

숲속의 숙면

고가제품의 각종 건강 매트에서 효험을 못보신분.
Dr-NIONZ으로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세요.

1.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짐
2. 심하게 코고는 분 70~80% 감소 효과
3. 잠못자서 항상 피곤하신 분 숙면으로 단잠
4. 호흡 곤란으로 힘드신 분 편안해집니다
5. 전립선으로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 확실한 효과
6. 피곤함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정신 노동 하시는 분에게 크게 도움을 줌
7. 귀취한 냄새를 제거해 줍니다
8. 스트레스나 통증 완화에 도움을 드립니다

Dr-NIONZ™ DOCTOR NEGATIVE ION ZONE

세계 최고 신비의 음이온 매트
음이온은 혈액을 정화하여 혈액순환을 높여줌
● 운동 원치 및 면역력을 강화함
●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완화함
● 피로회복과 집중력을 높여줌
● 1 초당 850만개의 음이온이 지속 영구적 생산되어 숨이나 복호수보다 많은 음이온을 제공합니다.

\$60 MINI

Dr-NIONZ provides more negative ions than a forest or waterfall.
● Dr-NIONZ Tourmaline Mat Generates 0.06 mA & FIR Far Infrared Rays.
● Approximately 3,000 Negative Ions Per Cubic Centimeter Per Second.
● Total Generates Over 4.5 Million Negative Ions Per Second.
● Non-Toxic / Allergy Free Silicone / Washable

Dr-Nionz 매트 는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여 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향상 시킵니다.
진드기, 곰팡이, 알레르기를 제거하는 닥터 니온스의 음이온 매트로 숙면을 즐기세요!!

무독성. 무취. 부작용 없음. 최고급 음이온 팔찌의 150배 음이온 발생
단 한번 구입 \$60 / \$99 평생 50년 이상 사용하실 수 있는 음이온 매트.

닥터-니온스의 강력한 음이온은 탁한 혈액을 맑게하며 혈관과 실핏줄을 확장시킴으로써, 혈액 순환을 높여줍니다.
엔돌핀과 NK 세포를 내보내도록 도움을 주며 암 예방과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산성화된 체질을 약 알칼리화 하는데 도움을 주며 심근경색, 치매, 중풍과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닥터-니온스의 강력한 음이온 매트 사용은 자연 숲 속이나 폭포수에서 숙면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후기

- Dr-Nionz 사용한 날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숙면을 취하고 자궁수축과 호흡이 편해졌습니다. (사용 2개월, 여) 60대 초반 김정은
- 많은 건강 매트를 사용해 보았지만 이렇게 효능있는 확실한 제품은 처음입니다. 전립선 때문에 잠자는 동안 화장실을 다섯 여섯번씩 다녔지만 지금은 한 두번정도. 잠자리와 호흡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사용 1주일, 남) 70세 정재용
- 손자가 코를 심하게 골아 잠을 잘못 잤는데 Dr-Nionz 사용후 코를 아주 적게 골며 잠을 잘 잤다. (사용 1주일, 여) 80세 복포 할머니
- 아내가 밤이면 네다섯번 잠 깨 숙면을 취하지 못했는데, 이젠 폭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공을 차다 허리를 약간 다쳤는데 Dr-Nionz 을 사용한 다음날 바로 숙면과 함께 허리가 나아졌습니다. (사용 2달, 남) 50대 글렌델 브레드
- Dr-Nionz 사용한 날부터 심하게 골던 코가 80% 정도 감소하고 숙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2달, 남) L.A David Lee
- 아내가 밤이면 종아리에 쥐가 자주나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던 중 Dr-Nionz 매트 사용후 쥐 나는 것에서 해방되어 아주 기쁘고 보너스로 코고는 것도 많이 감소하였으며 본인은 숙면을 취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 되었습니다. (사용 2달, 남) L.A 고윤기
- 추천 1: 음이온**이 가장 많이 나오는 Dr-Nionz 매트로 일주일 정도 사용 하였는데 숙면도 되고 만성 피로도 점점 좋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Dr-Nionz 추천합니다. (한의사 원장 이은희)
- 추천 2: 현대인**이엔 음이온이 부족하여 스트레스와 불안 불면 그리고 치매 중풍 뇌졸중등의 치명적인 병이 많아졌습니다. 초강력 음이온 Dr-Nionz 의 음이온 자연 자유 법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에 강력 추천합니다. (한의학 박사 원장 조재범)

그동안 수많은 음이온 제품들이 있었으나, 그 효과를 보신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존의 (팔찌, 매트, 벨트, 팬티, 여성 속옷 (브라 or 코르셋) 음이온 생리대 등 음이온 발생량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그 좋은 음이온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무료로 음이온 제품들을 측정해 드립니다.**

니온스 음이온 팔찌

업계 최고의 품질 보증!

강력한 음이온 방출
최초 3D 입체형 디자인

\$20 ONE 팔찌
\$22 양편 (TWO TONS) 팔찌

11 컬러 3 사이즈

1. 최고 수치의 음이온 방출.
2. 입체형으로 통풍이 잘 되며 습하지 않고 가볍지 않은 차별화된 디자인
3. 포장 법을 준수하여 과대 포장을 하지 않고 소비자를 위하여 가격을 확실히 낮추었습니다.

카멜레온 신비의 음이온 핸들커버

강력 음이온 팔찌보다 32배 음이온 방출!

COMFORT POWER GRIP

\$30

세계 최초 특허품
이런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 졸음 운전을 자주하시는 분
- 운전중 피곤하신 분
- 어깨나 팔이 아프신 분
- 손 관절로 인하여 아프신 분
- 차에 찌든, 담배 냄새 제거
- 운전중 집중력 강화

안전 운전자의 필수품!

5 year WARRANTY 명품 FUJITA 만의 강력한 특성!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됨

전자파 없는 원적외선 온열시스템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최고!
면역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Heating

양 팔과 양 발을 동시에 지압

Zero Gravity

3단 강약 조절을 선택할 수 있음!

머리 뒷골 및 머리 안마를 시원하게 함

세계 유일의 머리 안마 시스템!
후지타만의 완벽한 기능

허리 디스크, 좌골 신경통 교정에 최고!

에어 전신 스윙 안마

세계 유일한 발바닥 롤러 마사지 시스템

발바닥이 무척 시원해요!

전문 타이 스트레칭!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차별화된 안마에 대만족!

풀옵션!
머리부터 발 끝까지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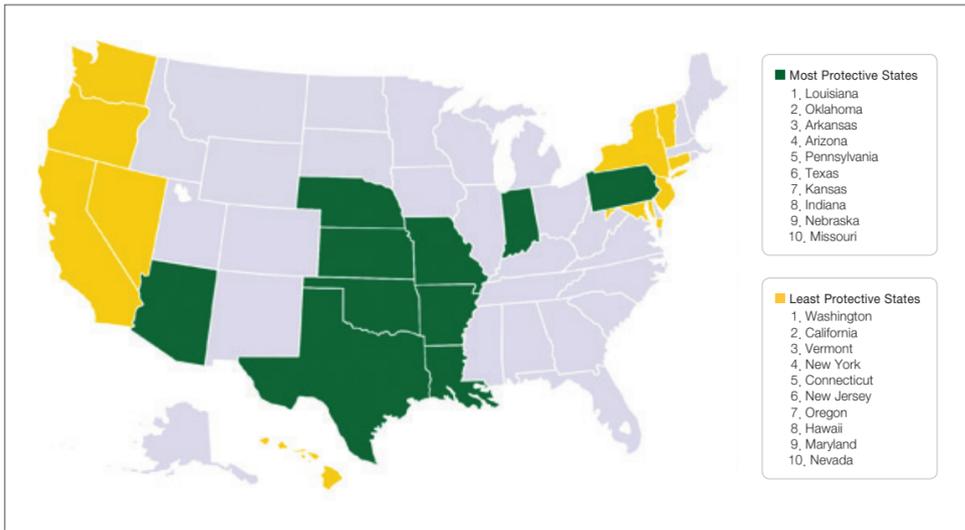
\$4,200

환상적 어게 3 회 10초씩
허리 3회 60초씩

7~8 천불 상당의 타사 마사지체어와 비교 해 보세요!!
품질은 최고, 가격은 정직한 절반값!! Reg. \$6,499.00

가장 친생명적인 주는 루이지애나, 가장 친낙태는?

미국의 친생명 반낙태 운동 전국적으로 활발해



생명을위함미국인연합이 발표한 자료. 가장 친생명, 친낙태 주들이 밀집해 있는 성향이 확인된다.

미국에서 낙태반대운동이 큰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인 친생명단체인 생명을위함미국인연합(Americans United for Life)이 친생명 반낙태 운동의 현황을 조사한 “생명 리스트(Life List)”를 1월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장 친생명적인 주는 루이지애나 주이며, 가장 친낙태적인 주는 워싱턴 주로 확인됐다.

이 리스트는 각 주의 법이 자연사를 어떻게 규정하며 얼마나 생명 보호에 적극적인지를 검토해 제작됐다. 이 단체는 “어머니와 아이, 탐욕스런 낙태 산업의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덕에 친생명 운동이 미국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에 이어서 오克拉호마, 아칸소,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캔사스, 인디애나, 네브라스카, 미주리 주가 친생명적

인 주로 꼽혔으며 이와 반대로 친낙태적인 주는 워싱턴 주에 이어서 캘리포니아, 버몬트, 뉴욕, 코네티컷, 뉴저지, 오레곤, 하와이, 매릴랜드, 네바다 주가 꼽혔다. 요 근래 친생명 운동이 가장 광폭할 만한 성과를 거둔 곳은 텍사스,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였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단연 텍사스 주다. 루이지애나 주는 5년째 가장 친생명적인 주, 워싱턴 주 역시 5년째 가장 친낙태적인 주로 꼽혀 왔지만 텍사스 주는 친생명 순위 14위에서 6위로 뛰어 올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적 주목을 받은 텍사스 주의 20주 낙태법 등에 힘입은 결과였다.

한편, 지난 2013년은 미국에서 가장 낙태 논쟁이 활발하게 이뤄진 한 해였다.

여전히 논쟁 중이긴 하지만, 미국 하원은 20주 낙태법을 가결했으며, 노스다코타 주는 6주 낙태법, 아칸소 주는 12주 낙태법 등 초강경 법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친생명적 움직임에 반대해 캘리포니아 주는 전문가가 아닌 조산사도 낙태를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 발효시키기도 했다.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 근거한 24주 낙태 규정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낙태 기준이지만 초음파의 발달로 생명체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낙태가 가능한 의료적, 법적 시점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더해 필라델피아의 악명높은 낙태의사 커밋 고스넬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큰 논란을 일으켜 친생명 운동에 힘을 실어 주었다. 김나래 기자

세계교회가 함께 하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주간”

18-25일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단 말입니까” 주제로

세계교회의 연합을 위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주간(Week of Prayer for Christian Unity)’이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이어지고 있다.

1908년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주간은 전 세계 가톨릭 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WCC) 회원 교회들(개신교·정교회)이 참여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연합을 위한 기도 운동이다. 북반구에서는 전통적으로 1월 18일에서 25일까지를 매년 기도주간으로 지키고 있으며, 남반구에서는 오순절 주간에 기도주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기도주간의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단 말입니까?(고전 1:1-17)’로 참여 교인들은 이 주제를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며 각자가 속한 지역의 교회나 단체에서 열리는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한다.

매년 기도주간마다 세계교회들이

다가가며 준비해 발행하는 자료집은 올해는 캐나다교회일치운동본부와 프레리교회일치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모인 캐나다 에큐메니컬 지도자들이 초안을 작성했으며, WCC 신앙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가 공동으로 발족한 그리스도 일치 기도주간 국제준비위원회가 검토했다.

자료집은 “△함께,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우리는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는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는 친교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우리는 합심하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함께, 우리는 복음을 선포합니다”의 총 8개의 기도문을 담고 있다. 손현정 기자

유명 기독교 윤리학자, 아들 동성결혼 주례해 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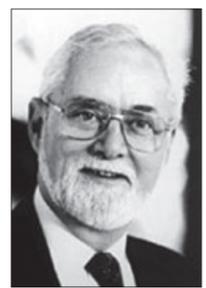
예일대 신학부 학장 지낸 오글트리 목사

연합감리교 목사이자 예일대학교 신학부의 학장이었던 토마스 오글트리 목사(80)가 자신의 아들의 동성결혼을 주례했다는 이유로 오는 3월 교단 재판을 받게 됐다.

최근 프랭크 웨퍼 목사 역시 아들의 동성결혼을 주례했다는 이유로 교단 재판에서 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연합감리교는 동성애자의 성직 임명은 물론, 목회자가 동성결혼을 주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지만 교단 내 외적으로 동성애를 허용하라는 압박이 매우 거세다.

오글트리 목사는 예일대학교의 명예교수일 뿐 아니라 드루대학교 신학부, 반더빌트대학교 등에서 가르친 매우 저명한 기독교 윤리학자로, 한인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오글트리 목사는 현재 연합감리교 정회원에서 은퇴한 상황이다. 그러나 몇몇 목회자들이 오글트리 목사가 2012년 뉴욕에서 주례한 아들의 동



토마스 오글트리 목사 ©예일대 홈페이지

성 결혼식을 문제삼았다.

오글트리 목사는 “아들의 주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뉴욕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이었기 때문에 사회법상으로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교단법으로는 불법에 해당했다.

오글트리 목사는 “교단이 사랑의 행동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목사로 임직할 당시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와 정의, 자유를 서약했으며 (동성결혼 주례는) 이에 부합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김영신 기자

北 억류된 케네스 배, 기자회견 열어

북한 강압일 가능성 매우 높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 선교사가 최근 자신의 유죄를 자백하고 김정은 정권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배 선교사는 “미국 정부와 언론, 가족들에게 내가 저지른 범죄와 북한의 인도적 조치에 대해 알려 주었다”면서 “최근 나에 대한 왜곡된 자료와 북한에 대한 악선전이 나돌아 곧 다시 교화소로 보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고 했다. 또 “지난 15개월 동안 어떤 인권유린 행위나 가족 행위는 없었다”고도 했다.

이는 두말할 것 없이 북한의 강압에 의한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최근 배 선교사의 가족들이 벌이고 있는 배 선교사 구명 운동이 미국 주요 언론에 보도되고 미국 정부도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배 선교사가 미국 정부와 가족을 향해 내놓은 발언은 맥락상 구명 운동에 있어서 인권적 접근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면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미국 정부와 언론, 가족들이 더 노력해 달라”고 했다. 구명 운동을 하지 말라면서 동시에 한 이 발언은 결국, 북한이 배 선교사를 이용해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고 기선을 잡고 싶어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기자회견에서 배 선교사는 “북한이 어떤 인권유린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 줬으며 5개월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몸 상태는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케네스 배 선교사

워싱턴 주 린우드에 거주했던 배 선교사는 미국 시민권자로 북한 관광 여행사 네이션스투어스를 운영해 왔다.

그리고 2012년 11월 3일, 관광객 5명을 인솔해 함경북도 나선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서 평양으로 압송됐다.

북한은 “(그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반공화국적인 종교 활동으로 우리 체도를 붕괴시킨다는 소위 ‘예리코(여리고) 작전’을 직접 계획하고, 그 실현을 위해 학생 250여명을 관광 목적으로 나선시에 들이밀었다”고 주장하며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억류되기 전 배 선교사는 북한 고아들을 돕고 빵공장을 지원하는 등 수년 간 구호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 선교사는 수백 명에 달하는 고아원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나선·선봉 지역의 빵공장도 지원한 사실이 전해졌다.

북한은 배 선교사를 억류한 후, 강제노동 사진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배 선교사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가운데 가장 오래 억류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카터 전 대통령 등이 특사로 파견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으나 실제로 이뤄진 것은 없다. 김영신 기자

초기 이민자 봉사센터

미국 생활에 어렵고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까?
한미 법률센터(초기 이민자 봉사센터)에서
전문 변호사 및 법무사, 세무사, 유학 전문가가 교민들을 위해
횡수에 제한없이 무료 상담을 해드리니 부담없이 이용바랍니다.

- 유학생(ESL 포함)전학 및 체류신분 변경
- 유학생의 학교생활 고민 상담(어려운점 및 문제점)
- 영주권 신청, F-1(학생), E-2(소액투자), R-1(종교)및 종교이민
- 아파트 분쟁
- 소액재판
- 민사소송
- 이혼
- 법인 설립
- 재정 보증
- TAX & Accounting (세금 절약 방법 안내)

이민국 서류 거절시 수수료 전액을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www.migukguide.com
migukguide@gmail.com

문의: 213)272-7498

1300 W Olympic Blvd, #202 Los Angeles, CA 90015 (Olympic + Union에서 동쪽으로 4블럭)



'이민목회와 바른 신학을 위한 연구회'가 경향가든교회에서 '사역과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신년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민목회 스트레스 이렇게 날려라

이민목회와 바른 신학을 위한 연구회 1월 모임

'이민목회와 바른 신학을 위한 연구회'(회장 한태일 목사)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담임)를 초청해 지난 1월 13일(월) 콜럼비아 소재 경향가든교회에서 '사역과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신년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민목회와 바른 신학을 위한 연구회'는 지난해 9월 웨스턴신학대학원 교수들 중심으로 첫 모임을 가진 후,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세미나를 열고 있다. 임원진은 회장 한태일 목사, 총무 이상록 목사, 서기 지창훈 목사, 회계 김병은 목사 등이다.

회장 한태일牧사는 "무엇보다도 순수하게 공부가 하고 싶어서 모이게 됐다. 목회자들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모임이 될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날 김용훈 목사는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다루지 못하면 목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강점보다는 약점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게 한다"며, 자신의 경험에 비취 스트레스 해소 방안 4가지를 제시했다.

첫번째는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김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의 가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교회의 규모나 직분이 자기 가치 증명 기준이 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

했다. 두번째는 섬김의 대상을 알아야 한다. 김 목사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흔들리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필요한 걱정, 비생산적인 경쟁심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세번째는 메시아 신드롬을 극복해야 한다. 김 목사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다는 비현실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메시아 신드롬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팀 사역인데, 팀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완벽주의와 건전한 자아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네번째는 주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 김 목사는 "주께 맡기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시46:10)을 기억하고 나는 준비가 됐는지 돌아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목회와 바른 신학을 위한 연구회'는 2월 모임을 24일(월) 오전 10시 30분 경향가든교회에서 갖기로 했다. 2월 모임에서는 웨일즈신학대 교수로 재직 중인 탐 할랜드 박사를 초청해 '바울신학'에 대해 들을 예정이다.

문의: 410-868-5171(회장 한태일 목사) 조요한 기자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말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말 14가지를 선정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롬 레이너 박사(라이프워어리서치 대표)가 이번에는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말 14가지를 선정한 칼럼을 발표해 화제다.

첫번째는 "사모님과 데이트 하실 수 있게 자녀를 봐 드릴까요"라는 말이다. 목회로 인해 자녀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해 온 목회자에게 잠깐 쉬라는 말, 그리고 자녀를 돌봐 주겠다는 말은 큰 힘이 된다.

두번째는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뭘 배웠고 그 설교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말씀드릴까요"라는 말이다. 역시 목회자에게는 자신을 통해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듣는 것보다 기쁜 것은 없다.

세번째는 "사모님이 교회에서 좀 자유로워지시면 좋겠네요"라는 말이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사모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시선이 가장 신경쓰이는 존재이기도 하다. 사모의 삶을 이해해 주려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된다.

네번째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목사님을 비판하는 사람을 봤어요"다. 목사님을 향한 성도의 은근한 신뢰의 말이다. 다섯번째는 "매일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을 위해 5분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다. 영적 협력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큰 자산이 된다.

여섯번째는 "교회 인사위원회에 각종 복지 혜택이 사례비와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했습니다"라는 말이다. 미국교회 목회자 대다수가 생계난에 시달린다. 작은

물질적 격려가 큰 힘이 되는 법이다.

또한, 일곱번째는 "목사님 자녀들도 평범하게 살 수 있어야 해요"다. 목회자들이 자신의 자녀들로 인해 교회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성도들의 격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역을 함께 할 분 찾는 일을 도와 드릴까요", "설교 준비를 위해 보내는 시간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말도 힘이 된다.

또 "모든 회의나 교회 일에 반드시 오실 필요는 없어요"라는 말도 좋다. 안 그래도 설교 준비, 심방, 기도회 바쁘게 교회 모든 행사에 나타나 주길 바라는 성도들의 기대는 목회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또 "그 일은 제가 할게요", "사모님을 어떻게 도와 드리면 될까요", "목사님께서 책을 좀 사시 수 있는 상품권이 여기 있어요"라는 말도 큰 힘이 된다.

이렇게 14가지를 정리한 레이너 박사는 "사역은 힘들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더 자주 만난다. 그러나 교회에는 좋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글을 맺었다. 김준현 기자



롬 레이너 박사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화-토)
저녁 오후 7:30(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T.(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소 3119W.6th, LA, CA 90020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7:45 E모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스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화-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예배 오전 9: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E모예배 주일 오후 11: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목요찬양예배: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서건오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927 Bonnie Brae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714) 319-223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성재복음선교회
은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가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주일 E모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최운형 담임목사

세계선교회
하나님의교회, 사랑의교회, 세상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 90006
T. (213) 388-1927, 388-2105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EM예배 오전 10:00

박승부 장로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17127, 37, 471 수료생 배출, 현재까지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약품이나 기구없이 손만으로 각종질환 치료하는 의술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정부 배넌전 전법)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김혜성 담임목사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초대교회의가정모임, 성경학교노니나, 만민제사장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전문의료 213) 505-7067

대표 김갑선 목사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 친, 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간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930-0011, (323)935-0011 /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930-0011, (323)935-0011 / www.LASarang.com

교회의 빛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 986-9797 / ganachurch.homp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성용 담임목사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기대연수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EM 1부 9:45/2부 11:45
중/고예배 오전 11:45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할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교회에 헌신하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강영석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 515-1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며 물통(통)하여 만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장애유아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최상훈 담임목사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새로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세리투스채움)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세리투스채움)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벨리채움)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 (다누리 채움)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벨리채움)

최희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쉽)
오후 12:00 (번역)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워싱턴 지역 미주한인의 날 기념주일 예배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와 미주한인전국재단이 공동주최한 '2014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주일 예배'가 1월 19일 메시아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최인환 목사)와 미주한인전국재단(총회장 이우호)이 공동주최한 '2014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주일 예배'가 1월 19일 오후 7시 메시아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박상섭 목사(워싱턴교협 총무)의 사회, 김영천 집사(워싱턴교협 부회장)의 기도, 정인량 목사(워싱턴교협 증경회장)의 설교, 특별기도, 드보라워십댄스선교단(단장 강경아 목사)의 특별찬양, 흥겨운 목사(워싱턴교협 회계)의 헌금기도, 이태봉 목사(워싱턴교협 서기)의 광고, 최윤환 목사(워싱턴교협 증경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정인량 목사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본문으로 "도전 천국"이란 제목의 설교를 전하며 "본문은 '천국 스스로 이 세상을 향해 밀려들어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니 침노하는 자는 그 천국을 낚아채게 될 것이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른 종말관과 내세관이 가르쳐지고 있지 않은 현 시대에 우리는 '천국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임을 전파하고, 우리 자신이 보여지는 천국으로 살고 있는지, 천국의 침노꾼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천국을 이 세상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자. 하나님의 나라가 미주한인전국재단과 워싱턴교협, 메릴랜드교협을 통해 이 지역사회에 밀려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고 축원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미국의 신앙회복을 위해(워싱턴교협 증경회장 김양일 목사), 차세대 정체성 회복을 위해(워싱턴원로목사회 총무 박태환 목사),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워싱턴교협 증경회장 배현수 목사) 각각 기도했다.

예배 이후 미주한인의 날 축하 순서는 임낙길 목사의 한미양국가 색소폰 연주, 미주한인전국재단 이우호 총회장의 환영사, 미주한인전국재단 정세권 명예총회장의 미주한인의 날 미의회 결의문 낭독, 박근혜 한국대통령 축하사(최인환 목사가 대독), 오바마 미

국대통령 축하사(이우호 총회장이 대독), 수잔 리 메릴랜드 주하원의원, 페니 그로스 메이 스티스트릭 수퍼바이저, 메릴랜드교협 회장 최정규 목사, 워싱턴원로목사회 회장 박석규 목사의 축하, 정세권 명예총회장의 광고, 워싱턴교협 회장 최인환 목사의 폐회사로 진행됐다.

이우호 총회장은 "1620년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던 청교도 102명이 온갖 어려움을 겪고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것처럼, 한국 최초 선교사들은 일제의 침탈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기에 인천내리감리교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인 102명을 미국으로 이주시켰다"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타락해가는 미국을 재건하도록 한국 백성들을 택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미주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살자"라고 전했다.

메릴랜드교협 회장 최정규 목사는 "이제는 한인교회가 미주한인사회에 올바른 길을 제시해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다민족들이 모여사는 이 미국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돌아볼 때"라고 말했다. 워싱턴원로목사회 회장 박석규 목사는 "미주한인의 날 기념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며, "이제는 워싱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기념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워싱턴교협이 확산시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워싱턴교협 최인환 목사는 "오늘은 지난 1903년 1월 13일 한국인 102명이 미국 하와이에 도착한 날을 기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2005년 12월 미연방 상,하원이 매년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제정 결의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 더욱 기쁘다. 더구나 이 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워싱턴 동포들과 후손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일깨우며 뿌리를 되찾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값지고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애틀랜타교협-한인회 협력 방안 논의



교협 임원진이 한인회에 한인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헬렌 김 부회계, 이순희 회계, 임연수 교협회장, 오영록 한인회장, 오대기 평신도부회장, 정윤영 서기, 김성범 총무.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이하 교협, 회장 임연수 목사) 임원진이 17일(금) 오전 11시 애틀랜타한인회(회장 오영록)를 방문,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엔 교협 임연수 회장, 김성범 총무, 정윤영 서기, 오대기 평신도부회장, 이순희 회계, 헬렌 김 부회계가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록 한인회장은 "교협과 한인회 모두가 소통과 화합이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서로 협력하고 하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교계에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자 한다. 올해는 특별히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에 참여해 한인사회의 힘을 키우고자 한다. 또 한인회비 납부 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교계의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연수 교협회장은 "올해는 한인회에 회관 건립이란 이슈가 있어 어떤 해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 교협은 돈으로 사립하는 기관이 아니라 물질로는 크게 도울 수 없지만 한인회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겠다. 알다시피 교회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직접 다룰 수는 없다. 하지만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회원교회들에 협조 공문을 보내 한인회비 납부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약속했다.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에 대해 이준원 한인회 부회장은 "조지아에서 한인 비즈니스가 투자한 돈이 2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한인들의 목소리가 없다. 유권자 등록 운동을 펼치긴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들이 없는 실정이다. 유권자 1천 명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후원을 받아낼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 수 있다.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 아무래도 교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직접적인 정치참여는 아니더라도 유권자 등록을 독려해 달라"고 설명했다.

오대기 교협 평신도부회장은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임을 가지며 정치력 향상을 위한 전문위원회까지도 만들어 일을 추진한다. 유대인들을 벤치마킹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 좋은 협력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연수 교협회장은 "SBC 내 한인교회들이 교단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다 보니 한인지원 정책이 스페니시 쪽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인사회의 유권자 등록도 같은 경우라 생각된다. 함께 길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이날 만남은 교협 임원진이 한인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 앤더슨 기자

뉴욕교협, 2014 신년하례예배로 힘찬 한 해의 시작 알러



뉴욕교협이 주최한 2014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에 500여 명이 달하는 목회자, 평신도,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목사)가 14일 오후 7시 대동연회장에서 '2014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열고 올 한 해 힘찬 사역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정계 인사와 유지 및 목회자·사모·평신도 500여 명이 참석,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1부 예배는 이재덕 목사(부회장)의 인도, 뉴욕남성목사합창단과 뉴욕장로성가단 연합합창단의 찬양, 김수태 목사(행사분과위원장)의 대표기도, 박영진 장로(이사장)의 성경봉독, 최낙중 목사(해오름교회)의 설교, 이주익 장로(평신도부회장)의 봉헌기도, 황동의 목사(목사회 회장)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

2부 하례식은 황영진 목사(준비위원장)의 사회, 애국가와 미국가 제창, 김승희 목사(회장)의 신년사, 손세주 총영사(뉴욕총영사)의 축사에 이은 퀵즈교협 회장과 109 경찰서장의 인사, 신현택 목사(증경회장)의 만찬기도, 공로상 포상, 박영진 장로(이사장)의 후원금 전달식, 이웃사랑실천 모금 전달식, 필리핀 하이엔 피해자 돕기 모금 전달식, 경품 추첨 및 증정, 송일권 목사(서기)의 광고, 김중덕 목사(증경회장)의 폐회기도 등으로 진행됐다.

김승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치·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지난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들과 교회들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면서 "복된 새해를 맞아 오늘 함께 기도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간구하는 기도가, 올해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최낙중 목사는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라'(요 7:37-39)는 제목의 설교에서 "첨단 기술의 발달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오히려 안으로는 메마르고 목말라 하고 있다"면서 "초대교회에 불었던 성령의 역사가 뉴욕 교계에 다시 한 번 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교협은 이날 특별히 2014년 목회자 공로상을 김수태 목사(어린이양교회)에게, 평신도 공로상을 이광도 장로(뉴욕동부교회)에게 시상했다. 김수태 목사는 뉴욕 교계의 연합사역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이광도 장로는 뉴욕교협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교회들을 섬긴 공로를 인정받았다.

훈훈한 나눔의 시간도 이어졌다. 이날 뉴욕교협 이사장 박영진 장로는 뉴욕교협 측에 후원금을, 뉴욕교협은 코코장애아동서비스센터를 비롯해 뉴욕교계 11개 봉사단체에게 지난해 연말까지 진행한 이웃사랑실천모금운동 기금을 전달했다.

또 필리핀 하이엔 피해자 돕기 모금 전달식도 있었다. 모금에는 총 26개 교회와 1개 단체가 동참했으며, 이날 하례식에서 재해분과위원장 장재웅 목사는 모금 전액 \$28,935을 김승희 회장에게 전달, 오는 1월 말 뉴욕교협 임원진들이 필리핀 현지 선교사 12명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을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은 푸짐한 만찬을 함께했으며, 테이블을 오가며 새해 안부를 나누는 친교의 장이 형성됐다. 또 식사 중에는 경품 추첨 및 증정 등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마련돼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서 신년하례회가 진행됐다. 김대원 기자

워싱턴성광교회, 필리핀 이재민돕기 성금 1만 달러 전달



워싱턴성광교회 홍덕기 장로(왼쪽)가 워싱턴교협 김영천 부회장(구조성금위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워싱턴성광교회(담임 임용우 목사)가 지난 1월 9일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최인환 목사)에 필리핀 이재민돕기 구조성금 1만 달러를 전달했다. 워싱턴교협은 지난 1개월간 필리핀 이재민돕기 구조성금 캠페인을 펼쳐 현재까지

80여 교회와 단체, 개인들로부터 약 6만 달러의 성금을 모았다. 워싱턴교협은 1월 22일경 필리핀을 직접 방문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성금과 구조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조요한 기자

여성의 '자기양육', 그리스도와와의 첫사랑에서 시작된다

잔스크리한인교회(담임 이순훈 목사)의 여성들만 위한 모임 '향수'(향기 나는 수요일예배) 새해 특강에서 정소영 박사가 여성들의 자기양육과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 강조했다.

15일(수)에 열린 이번 특강에서 정소영 박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낌없이 주는 태도와 사랑을 보여준 후 자신의 여정을 이어갔다.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도왔다. 이를 자녀양육에 비유해 보자. 자녀를 키울 때 방관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되지만 소유하려 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해서도 안 된다.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하며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또 자녀나 남편과 구별된 나를 보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나는 남편과 사별하는 시련을 겪기 전까지 '자기양육'에 관심이 없었다. 그때 정말 힘들었다. 불완전한 개체가 되어 남은 나만 있었다. 이 때 내가 아무리 부족하

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됐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됐다"며, "하나님께서 각각 달란트를 주셨다. 각자의 은사를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보신다. 이 달란트를 사용하여 자기양육에 힘써야 한다. 이런 자기양육은 역경을 만났을 때 충격을 완화하는 방파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첫사랑 관계를 가져야 한다. 자기양육은 곧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더불어 삶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라. 한 예로 대부분의 여자들이 '할머니'라는 단어를 듣기 싫어한다. 할머니라는 말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말이다.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비참할 수밖에 없다. 긍정적 사고를 가지라. 지금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또 어떤 경우에도 자기비하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앤더슨 기자

O.C./앨버틴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장애인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11:00
한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뻑어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예배 오전 1:00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박옥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규만 담임목사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 802-4959, Cell: (714) 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EM영아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강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배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김한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체이다. 내가 그리스체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중, 고등부 오후 3시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청년부 오후 3시 한국교회 (토) 오전 10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믿음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능복하여
공동체를 사랑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신현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받은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EM예배 오전 10:00 (FC체움)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오후 12:3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체움)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명집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엘버틴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엘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관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엘버틴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 사른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엘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생명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영혼구원과 해를 품어 내리는
사랑과 생명의 사랑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네셔널 찬양송예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6: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영명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영원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주일목심예배 오후 2: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일 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화요일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 E배배 오후 7:30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강을 건너 세례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랑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세계 최초의 캐거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미국 FDA에 의약품으로 인증 등록됨
일반 의약품 등록 번호(NDC No: 58912-2001)

기적의 약 (Miracle Pharmacy)

미라팜-22

시판개시!

Mirapharm-22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예방 및 치료약,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약



90캡슐 / 한달 분 / 한 병

22세기형 최첨단 신약으로 탄생했습니다.

100% 천연 유기물질로 만들었으며
24년간의 연구와 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0년간의 임상 끝에 100% 천연 물질이면서 의약품으로 인증 받은 미라팜-22
- ◆ FDA에서 본 제품의 독성 및 기타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미국 FDA에 의해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 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약 등록
- ◆ 친환경 천연유기물질을 생명공학 공법으로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면역 증강, 각종 질병 치료제
- ◆ 100% 천연유기물질 소재로 만들었기에 부작용의 염려가 없고 각종 난치병에도 많은 효험을 나타냄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인증받은 첨단 의약품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복용후 5일 - 11/5/2013 복용후 25일 - 11/2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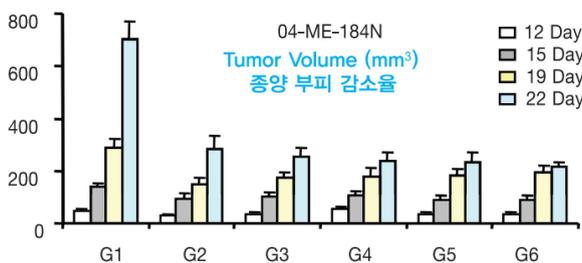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복용전 복용후 99일

미라팜-22의 암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최종일 - 투여 22일째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율 %	0	59.5	64.3	66.6	67.1	69.6

키모테라피에 사용하는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암 부위 감소율을 자랑하는 천연 치료제인 미라팜-22의 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곧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분단 70년인 2015년, 평양에서 기독교 대성회 열자”

한목협, ‘한국교회와 북한’ 주제로 제25차 열린대화마당 개최



허문영 박사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김경원 목사)는 20일 오후 서울 서현교회(담임 김경원 목사)에서 ‘2014년 북한의 상황, 한국교회의 기도로 바꾼다’를 주제로 제25차 열린대화마당 및 신년기도회를 개최했다. 강명도 교수(경민대 인성교육원 북한학)와 허문영 박사(평화한국 대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가 강사로 나섰다.

“장성택 숙청, 또 반복될 수 있다”

먼저 ‘장성택 처형으로 본 김정은

체제의 전망’을 제목으로 발표한 강명도 교수는 “지난해 12월 김정은에 의한 갑작스런 장성택 처형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며 “가족과 같은 인물을 가장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전광석화 같이 신속하게 숙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장성택 숙청은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에 따른 경제난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이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내세운 명분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장성택이 귀중한 지하자원과 영토를 싼 값으로 외국에 팔아먹은 매국행위를 감행했다고 지적한 내용이다. 이는 장성택에 대한 숙청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이에 따른 북한 내부의 경제난 악화로 인해 자아진 파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다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면 앞으로의 관건은 단시일 내에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확고해지고 경제난이 해소됨으로써 누구에게나 충분히 차릴 수 있을 정도로 파이가 크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장성택 숙청과 같은 일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앞으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최용해의 움직임이다. 장성택 숙청으로 확실한 2인자로 자리매김한 최용해로서는 이제 거칠 것

이 없다”며 “이러한 최용해와 그를 견제하려는 세력 간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표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연 최용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최용해도 ‘백두산 혈통’이라는 측면에서는 김정은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가 바보가 아니라면 이 기회에 김정은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함께 장성택 숙청의 학습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북한에 있는 김정은 뿐만 아니라 장성택과 같이 처형을 당하기 전에 반 김정은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면밀히 주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면밀하게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롱, 분노 넘어 상생적 태도 가져야”

강 교수에 이어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체제 전망과 북동통일 방향’을 제목으로 발표한 허문영 박사는 “사분오열된 우리 사회를 북동으로 치유하기 위해 교회가 노력해야 한다. 거대담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조롱과 멸시를 넘은 상

생적 태도를 교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설교하고, 연민적 눈물만 지나치게 유도하거나 극단적 분노만 촉발시키는 감정적 대북접근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박사는 또 “통일한국은 자유와 평등, 정의, 사랑, 평화가 구현된 나라여야 한다. 이런 나라는 남한체제 확산론이나 남북한체제 수렴론을 넘어 남북한체제 변혁론적 접근으로만 가능하다”며 “교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말씀에 기초한 영역선교를 활발히 준비해야 한다. 개교회만으로는 어렵고, 연합해서 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균형심자외교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점점에 있는 한반도가 미·중·일·러 주변 4국 모두와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평화와 번영의 지대가 되도록 하는 외교를 뜻한다”며 “북한의 공산화 통일전략과 주변 4개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경쟁 속에서, 우리는 북동적 평화로 남북한 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를 끊임없이 구축해 평화통일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박사는 “2015년은 우리 민족이 ‘분단’이라는 것에 포로로 잡힌 지 70년이 되는 해다. 2015년 8월 15일 평양에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남북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민족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세계선교를 위해 참여하는 대성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자”면서 “지름길은 없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강명도 교수

운데 우리의 진실함과 꾸준함만이 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연에 앞서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전병금 목사(강남교회)는 “통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고, 신년사를 전한 김경원 대표회장은 “독일의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의 역할을 언급한다. 이처럼 통일은 정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하자”고 주문했다. 이대용 기자

“한국교회 하나되어야 북한 열렸을 때 선교 감당”

김영한 박사, 북한교회세우기포럼에서 ‘3대 원칙’ 강조

제10차 북한교회세우기 포럼이 20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8호에서 진행됐다. 북한교회세우기연합 총회 이후 진행된 포럼에서는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가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신학적 성찰’이란 주제 강연을 전했다.

김 박사는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국 주민들에게도 번영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먼저 북한의 ‘정치적 종교’를 비판했다. 북한 정치당국은 단순한 정치집단이라기보다 주체 이데

올로기에 기반한 종교집단으로, 사상의 핵심이 수령관과 영생관이기 때문에 북한의 주체사상은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우상종교’라는 것.

그는 “기독교 신앙은 한 민족의 정치적 종교의 신화와 상징과 개인숭배 같은 것을 뚫고 거듭 새롭게 정치적 우상파괴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위르겐 몰트만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십자가 신학’으로 주체 우상종교를 비판하기도 했다.

“복음주의 신학은 교회나 국가의 영역에서 야기되는 제도나 기구의 절대화 및 우상숭배에 대해, 십자가 신학적 비판을 수행하는 ‘정치신학적 사고’를 해야 하고, 정치 신학은 기독교 신학의 부차적 기능이 아니라 본질적 기

능”이라는 것.

그는 “복음주의적 정치신학은 십자가 신학으로 전개되고, 그 출발점은 정치권력을 장악하거나 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편에 서는 것”이라며 “이러한 신학적 사고는 국가와 사회 안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일깨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메시아 도래에 대한 선취의 경험을 갖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영한 박사는 “현재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는 북한 기독교인들 숫자는 7-10만명 가량으로 추산됨에도, 북한의 기독교 신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대대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교회 재건의 원칙으로는 ①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창구를 일원화하는 연합의 원칙 ②북한에 교회를 세울 때 각 교단의 이름으로 하지 말자는 단일의 원칙 ③남한교회가 북한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탈북민)을 돕고 앞세워 빠른 시일 내에 북한에 3백개 교회를 회복하는 독립의 원칙 등 3대 원칙을 지킬 경우 별다른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한 박사는 결론을 통해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한국교회 교단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연합)”며 “하나님께서 문을 갑자기 열어 주셨을 때를 반드시 대비하고 있어야 하고,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총망라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통일운동에 있어서는



김영한 박사

새로운 세대가 중요하다”며 “북한교회 재건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며, 선교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대용 기자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찜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예배 때 30분간 성경 낭독하는 탈북민 교회, 청년 급성장 “통일, 신앙 자유 못 누리면 北 성도 구출하는 일”

“성경의 놀라운 능력” 통독으로 신앙 성장과 선교까지

임성준 전 캐나다 대사, 샬롬나비 제25회 월례포럼서 발제



황금종교회 주일예배 중 탈북민들이 찬양을 하고 있다.



임성준 전 캐나다 대사가 발표하고 있다. ©샬롬나비 제공



최광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 1:1)”. 주일이었던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 모여 앉은 청년 70여 명의 입술에서 일제히 성경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이크를 잡은 한 여성 청년의 인도 아래 낭랑하게 울려 퍼진, 이 하나님 말씀 ‘합창’은 30여분간 계속됐다.

탈북민들을 섬기는 황금종교회의 주일은 이렇듯 여느 교회들과는 달리, ‘성경 낭독’으로 시작한다. 황금종교회를 섬기는 최광 목사는 탈북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열방 빛선교회’의 ‘성경통독 100독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경 낭독’은 이 학교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30분간 ‘말씀의 하모니’가 진행되는 동안, 교회에는 어느덧 100여명이 들어차 발디딜 틈조차 없어졌다. 간간이 40~50대도 보였지만, 대부분 10~20대 청소년·청년들이었다. 11시부터 30분간은 ‘찬양의 하모니’가 이어졌다. 탈북 청년들은 찬양이 계속되는 동안 손을 들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뜨겁게 노래했다. 간혹 산만한 이들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집중력 있는 분위기가 계속됐다. 여기

저기서 흐느끼는 소리로 들렸다.

이후 예배가 시작됐고, 최광 목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호 10:12-15)’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이자 대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아예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며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본문의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는데,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같은 곳이었다”며 “그러나 그들은 죄악에 빠지고 정욕을 좇아 영적으로 타락,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갔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아직 젊기에, 갑작스레 맞이한 풍요와 자유를 만끽하지 못한 채 방종과 낭비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지 말라고 호소하는 듯했다.

그는 “하나님께서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우리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울다가 안 되면 회초리도 드실 수

있다”며 “우리는 악을 받 갈아서 죄와 거짓의 열매를 거둘 게 아니라, 의를 심고 금흙을 거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은 땅을 기경하자”고 역설했다.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를 비와 같이 쏟아부어 주실 것”이라며 “저도 힘들고 가진 것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 됐다”고 권면했다.

이들이 예배 전 무려 30분간 ‘성경 낭독’을 할 수 있도록 한 ‘성경통독 100독 학교’는, 이미 탈북민들의 신앙 성장에 큰 역할을 하며 검증됐던 프로그램이다. 최 목사는 당시 이를 통해 북한을 가까스로 탈출한 후 제3국에서 영육간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방황 중이던 많은 이들을 신앙으로 이끌었다. 최 목사는 이에 대해 “성경통독 사역은 쫓기고 의지할 곳 없는 탈북민들에게 생존 기반을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선교의 일꾼으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현재 2기생 모집을 끝낸 ‘성경통독 100독 학교’는 2기생 교육에 한창이다. 지난 13~14일 1박 2일간 MT를 다녀온 후 본격적인 말씀 통독과 기도 훈련 등에 돌입했다.

이날 이들이 함께 모인 황금종교회 예배당은 지하에 자리하고 있는데, 최광 목사는 현재로서는 갈수록 몰려드는 탈북 청년들을 수용할 장소가 없어 고민이다. 서울 당산3가 영등포구청역(2·5호선) 인근에 위치한 이 예배당은 비상구가 없고 좁은 공간에 탈북 청년들의 숙소와 예배당이 함께 있어, 화재 등 재난이 닥칠 경우 큰 인명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특히 갈 곳 없는 탈북 청소년·청년들이 이곳을 안식처로 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최 목사는 “서울 인근에 기숙사와 예배당을 함께 마련해 탈북민들을 훈련시키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신앙인의 자세’를 주제로 17일 아침 서울 동산교회(담임 유종필 목사)에서 제25회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발제는 임성준 전 캐나다 대사가 맡았다.

임 전 대사는 발표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는 우리에게 변함 없는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정책 기조로 소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천명하고, 북한의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경우에만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옳은 기조와 방향이다. 특히 북한이 개발·보유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는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대북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 가지, 우리의 안보에 커다란 부담 요인일 뿐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흐트리고 있는 사안은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우경화 현상”이라며 “미·중 간의 경쟁이 지속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에 더해 일본과 중국 간의 해계 모니 싸움이 본격화되는 동북아의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온 것”이라며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일제 강점기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국전쟁 동안에는 북한 공산 세력의 격퇴를 위해, 그리고 그 후에는 나라의 경제와 정치의 발전을 위

해 합심으로 기도해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 주셨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임 전 대사는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념적으로 나뉘어 서로를 관용하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때 교회가 문제의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다함께 관심과 뜻을 모아 기도해야 할 제목은 남북한의 통일 문제”라며 “이제부터는 우리 정부나 교회가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물론 남북한 통일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우리의 주도 하에 이뤄져야 할 것은 자명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식량, 의약품, 특히 어린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현 시점에서 통일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제적, 외교·안보적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통일은 우리 교회로서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 성도들을 구출하는 것이며 남북분단 후 무너진 북한의 성전을 수축하는 영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일인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진영 기자

기성·예성·나성, 5천명 규모 ‘성결인의대회’ 연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예수교대한성결교회·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가 연합하는 ‘제1회 성결인의대회’(가칭)가 3월 16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영등포 신길성결교회(담임 이신웅 목사)에서 ‘성결의 복음으로 이 땅에 회복을’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주최측인 한국성결교회연합회는

이 대회를 약 400개 교회에서 5천여 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한성연 측은 “성결인의 일치와 화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며, 성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결운동을 전개할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전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분

기독교일보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정상용 목사

1부 예배 오전8:00 1부 EM예배 오전11:00
 2부 예배 오전11:00 2부 EM예배 오후1:10
 3부 열린 예배 오후2:00 중고등부EM예배 오전11:00
 수요일예배 오후7:30 금요중보기도회 오후9-11시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미주장신대 32대 동문회

임원회 이사회

회장 서정일 목사 이사장 고영준 목사
 부회장 차경미 목사 부이사장 강신권 목사
 서기 장성영 목사 서기 김경준 목사
 부서기 어재선 목사 회계 김종용 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정장수 목사

주일1부 예배 오전8:00 EM 예배 오후2:00
 주일2부 예배 오전9:5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25
 주일3부 예배 오후12:0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6:20
 주일4부 예배 오후 2:22

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
 T. (213) 739-8824

동부사랑의교회 박승규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
 Holy Wave(EM) 오전 10:15
 대학청년부 오후 2:00

5540 Schaefer Ave.Chino,CA 91710
 T.(909) 590-3722 / F.(909) 548-3722

<서승원 특별 기고>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에 대한 오해들(13)

3.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의 관계

2)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에 대한 상반된 견해들

디아스포라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일 년에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와 같은 본토에 대한 방문은 이스라엘 본토와 디아스포라 간의 차이를 해소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공동체들은 팔레스타인에 그 지부를 두고 있었는데, 이 소 공동체들은 본 공동체에서 본국을 방문하는 자들을 위해 숙소 등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다시 말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본국에 또 다른 디아스포라를 설립한 셈이다. 이 본국의 소 디아스포라는 국외의 대 디아스포라와 본국의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본국의 유대인들과 국외의 디아스포라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간에 큰 차이가 있었으리라고 상정하기 힘들다. 특히 종교적 관행과 사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유다이즘과 디아스포라의 유다이즘 간의 구별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위에서 소개된 데이비스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AD 1세기에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의 구별 자체가 매우 모호하다고 말한다.

헬레니즘 시대에 있어서 소위 신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희랍식 교육을 받고 희랍어를 말하는 것은 상류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조건이었다. 희랍식 교육이란 희랍어로 된 희랍문학과 역사를 통해서 희랍사상을 배우며, 종합체육관이라고 할 수 있는 김나지움에서 체육과 함께 희랍식 운동과 사교를 배우는 것을 말한다. 언어는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 또는 그런 것들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말을 흔히 듣는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언어의 기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문화적 체험이 담겨 있는 그릇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상의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되면 그 언어를 사용한 민족의 사상과 관습을 배우게 된다.

헬레니즘 시대에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들의 작품을 희랍어로 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자의 의도가 어떠한 상관없이 그 작품 속에 희랍적 요소가 묻어 들어가 되고 또 독자들은 그것을 희랍적 사상의 틀 속에서 해석한다.

이것은 희랍어로 쓰인 신약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이 희랍어로 쓰인 직접적인 이유는 물론 희랍어가 당시의 공용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그리고 보다 중요한 이유는 희랍어가 복음의 깊은 뜻을 담는데 가장 적합한 언어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후에 스토아 학파에 속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황제나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한 시인 루크레티우스(Lucretius)와 같은 로마인들이 그들의 철학적 저술을 라틴어가 아닌 희랍어로 기록한 사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희랍문화 특히 사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근동의 문화와 사상에 대한 지식이 도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쓰인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성경이 쓰인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언어가 통용된 사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3) 헬레니즘과 유다이즘의 다양성

그런데 헬레니즘과 그에 영향을 받은 유다이즘은 3세기 동안 내내 동일했는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펙

나이프(naive)한 생각일 것이다. 3세기 즉 300년은 상당히 긴 세월이다. 우선 헬레니즘의 경우를 보자. 고대 이집트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언어와 마찬가지로 문화 일반도 변화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집트의 경우 특히 예술의 경우에 있어서 약 3천 년간 거의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은 지배계급이 자기의 특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를 엄격하게 배제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규제된 예술 따라서 인위적인 예술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희랍예술은 크게 다르다. 희랍예술에서는 시대에 따른 뚜렷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아테네의 국립박물관을 방문해 본 사람은 예술에 있어서 비록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변화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탄과 그리피스는 헬레니즘 시대를 다음과 같이 두 국면으로 나누고 있다:

이 3 세기는 하나의 국면이 아니라 두 국면을 보여준다: 처음 국면은 과학, 철학, 문학, 정치형태와 그밖에 많은 점에 있어서 창조적이었고, 희랍-마케도니아 세계는 그 문명을 아시아에로 확대하였다: 나중 국면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창조적 충동과 서방에 대한 동방의 반작용의 고갈로 특징지어지고, 한편으로 희랍-마케도니아 세계는 로마가 궁극적으로 헬라적 국가제도를 파괴한 뒤에 결국 희랍문화의 기수의 임무를 떠맡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위에서 말한 반작

용과 로마 사이에 붙잡혀 있었다.

이에 덧붙여 이 기간 중 동일한 시기에도 서로 다르거나 심지어 상반된 관습들과 사상들이 병존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실은 철학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헬레니즘 시대만 아니라 그 전 시대를 포함해서 고대희랍 전 시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헬레니즘을 인본주의 또는 개인주의 등 한마디로 특징지을 수 없는 이유들 중의 하나이기도 한 것이다.

유다이즘에 대해서도 다소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유다이즘의 특색 중의 하나는 헬레니즘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상이하고 또 상반된 여러가지 사상이 공존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요즈음의 학자들 중에는 단수형인 Judaism 대신에 복수형인 Judaisms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다양성은 비단 유다이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일반을 지칭하는 헬레니즘 자체의 특색이기도 하다.

실제로 유다이즘의 다양성은 헬레니즘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헬레니즘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성과 더불어 그것에 대한 반응이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헬레니즘은 단순히 희랍적 문화를 뜻하기 보다는 보편주의 그리고 새로운 사상과 관습에 대한 적응 또는 포용을 뜻하기도 하였다. (계속)

<3단계 영어> Three-Level English Education(29)

English Beginning Level (초급영어 29회)

Do you need a pair of shoes?
당신은 신발 한 켤레가 필요합니까?
Yes, I need them for my exercise.
네,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Does your father need a pair of glasses?
당신의 아버지는 안경이 필요합니까?
Yes, he needs them for reading books.
네, 책을 읽으시기 위해 필요합니다.
Does your brother want a big house?
당신의 형은 큰 집을 필요로 합니까?
No, he wants a small house.
아니요, 그는 작은 집을 원합니다.



배효식 교수
미국침례신학교(ABSW)

Does your sister want to buy a magazine?
당신의 누나는 잡지를 사길 원하시나요?
Yes, she likes to read it.
네, 그녀는 잡지 읽기를 좋아합니다.

Do you want to sell your old books?
당신은 낡은 책을 팔길 원합니까?
No, I need them for my personal library.
아니요, 그것들은 내 서재에 필요합니다.

English Intermediate Level (중급영어 29회)

No one has gone up to heaven except the Son of Man. He came down from there. He must be lifted up, just as that metal snake was lifted up by Moses in the wilderness. Then everyone who has faith in the Son of Man

will have eternal life.

인자 외에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 분은 거기에서 오셨다. 광야에서 뱀뱀이 모세에 의해 들렸던 것처럼 그분은 들려져야 한다. 인자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English High Level (고급영어 29회)

John Wesley was born in the rectory of Epworth, Lincolnshire, England as the fifteenth child of Samuel and Susannah Wesley. He was educated at

Oxford University. He showed his leadership to the 18th century Evangelical Revival with his younger brother Charles. He was the hymn writer, particularly to the Methodist movement.

요한 웨슬레는 영국의 링컨셔 엠퍼워즈의 교구 목사관에서 사무엘 그리고 수산나 웨슬레의 15번째 자녀로 태어났다. 그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동생 찰스와 더불어 18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에 지도력을 보여 주었다. 그는 특별히 감리교 운동의 찬송 작곡자였다. (계속)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북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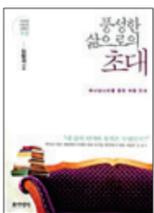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김형국 | 포이에마 | 184쪽

나들목교회에서 묵회하고 있는 저자가 13년간 성도들과 꾸준히 나누었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4가지로 명쾌하게 설명한 내용을 7장으로 엮었다. 그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나라 복음'을 가능한 많은 이들이 이해하도록 노력했다고 한다.



겨울에 가장 잘 자라는 은혜

리곤 던컨 · 니콜라스 리드 | P&R | 152쪽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고통을 겪으면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학적으로 깊이 통찰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의 적용을 놓치지 않는다. 고통 속에서 믿음하며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



내 인생 최고의 선택

김양재 | 두란노 | 220쪽

김양재 목사가 '룻'에 대해 묵상한 큐티 노트. 이방 여인 룻이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최고의 선택을 했듯,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이야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붙들 마음만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



소명 여행자

게리 바칼로우 | 예수전도단 | 224쪽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원 계획을 발견하고, 이를 방해하는 공격들을 극복하도록 도와 자신만의 소명을 찾도록 인도하는 가이드북이다. 저자는 20년 넘는 전문 사역경험을 통해 쌓아 온 지혜를 펼쳐, 잠든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다.



REVIEW

“예배의 자리에 아기를 누이기만 해도 하나님 은혜가...”

이스라엘 가정교육 전문가 이영희 원장의 「삼위일체 육아법」

〈내 아이 영성지수로 키워라〉, 〈유대인의 밤잠머리 자녀교육(이상 규장)〉, 〈침대머리 자녀교육〉, 〈공부습관, 3세부터 확실히 잡아라〉의 저자이자 이스라엘 가정교육 전문가인 이영희 원장(이스라엘 교육연구원)이 〈삼위일체 육아법-영아부(이상 몽당연필)〉을 펴냈다. 여기서 '삼위일체'란 교회학교 교사와 부모, 아이 등 교회 영아부의 세 주체를 말한다.

저자는 8개월이 되면 유아용 학습지를 시작해야 하고 27개월이 되면 글공부에 들어가야 하는 21세기 세대에서, 영아들의 '영혼 양육(nurturing soul)'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전제한다. 갓난아기들에게 놀라운 학습 능력이 있다고 믿어 공부를 시키면서도, '성경 말씀을 들려준들 아기가 알아듣거나 하겠어?' 하며 고개를 가웃거리려는 것. 저자는 "세상 교육에 쏟는 열

심의 절반 아니 십분의 일만 내어도 신앙 교육이 지금처럼 위태롭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와 아기가 모인 영아부는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다 보니 대화의 주제가 풍성하고 그만큼 소통이 활발한 편이다. 이를 통해 영아부는 교회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기동 역할을 할 수 있는 젊은 부모들까지 하나로 묶는 밴딩(banding) 효과까지 발생시킨다.

여기서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신앙 교육도 필요하다. 영아부에서 아기 교육과 부모 교육을 적절히 병행 시도하는 일에 성공한다면, 일꾼 부족에 시달리는 교회에서 젊은 교사들을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

영아부에 아이를 맡겨놓고 예배당으로 내려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

약시대에는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회중이 한자리에 다 모이게 했고, 누가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아기를 데려가려던 엄마들을 제자들이 제지하자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 곁에 가까이 세우셨다"면서도 "그러나 아기 예배는 기본적으로 특수성을 따르고 필요에 따라 전체성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4세 미만의 영유아는 부모와 함께 주일학교 해당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며 연령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절기나 행사 때에는 아기와 함께 회중 예배에 참석할 것을 권한다는 것. 아기가 유치부로 진급하면 부모는 아이와 비로소 떨어져 회중 예배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

유대인들의 전통 중 '강보 바느질'을 소개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누이기만 해도 은혜"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강

보 바느질'이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한 땀 한 땀 강보에 수놓는 것을 말하는데, 말씀을 수놓는 어머니의 정성과 신앙이 아기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리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전통이다. 아기가 세상으로 나오자마자, 세상의 악한 것들이 아기를 덮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싸매어 보호한다는 뜻에서 산모는 이 강보로 갓난아기를 돌돌 싸맨다. 이 강보는 마치 성경 두루마기와도 같다. 이 원장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육아법 이영희 | 몽당연필 | 304쪽

아기가 자랄 때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난다"며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아기를 가만히 누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영아부 교사의 중요성은 '아침에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원장은 "아기들의 마음은 아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이른 아침에 이슬이 내린 밭과 같기 때문에 아기들의 심령에 이슬 같은 하늘의 은총이 내리도록 신선한 아침에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구약성경에 잔인하게 반복되는 '유아 학살'에서 볼 수 있듯이, 사탄은 끊임없이 어린 영혼들을 해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 신앙교육을 더 일찍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대웅 기자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테크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춤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홍삼”

213-383-8899

621 S. Virgil Ave #27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2층)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50

한달분

구연산 판매합니다.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 213.924.8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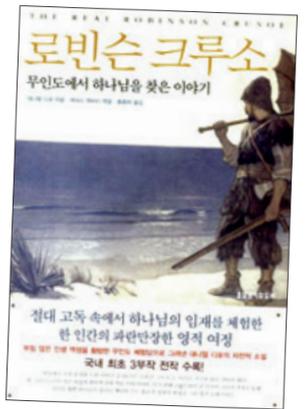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트모아)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기독교 고전 다시 읽기

로빈슨 크루소, 단순한 모험기 아닌 고난 통과하는 '고백록'

무인도에서 하나님을 찾은 이야기 「로빈슨 크루소」



로빈슨 크루소: 무인도에서 하나님을 찾은 이야기 | 대니얼 디포(홍종락 역) 생명의말씀사 | 312쪽

책을 읽다 보면 한 문장 때문에 전 울할 때가 있다. 전에 고(故) 박완서 작가의 <세상에 예쁜 것>이란 책을 읽다가 그런 문장을 발견했다. “아무리 어두운 기억도 세월이 연마한 고통에는 광채가 따르는 법이다.” 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꺼내 보지 않으면 기억도 흐릿하다. 그런데도 이 문장 하나만은 마음에 새겨져 있고, 마음 속에 꼭꼭 눌러 놓았다. 고난과 상처가 아프지만은 않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은 깨달음 때문이다. 운명적 만남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와의 만남도 비슷하다. 작년 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선순위에 밀려 마음에 담아두었던 고전 소설을 찾아 독서계획표를 작성했다. 많은 문학 작품이 있지만, 아무래도 영미문학을 비껴 나갈 수는 없어 보였다. 넘쳐나는 세익스피어를 뛰어넘어 잘 알려져 있지만 읽히지 않는 책을 선별해 내기 시작했다. C. S.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서 고전 읽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오던 터에, 대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는 시기적절한 선택이었다. 이 책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개될 영미문학 고전들을 섭렵할 작정이었다. 처음은 그렇게 순박하고 단순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다. 조금씩 읽어가면서 낯선 어색함이 흘렀다.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나님의 복이나 아버지의 복을 구하지도 않고, 결과를 따져 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집을 떠나 첫 번째 항해에 나섰다.' 17세기 영국이라는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이란 직설적인 표현에 당황했다. 불투명한 정보로부터 전해 들은 '로빈슨 크루소'와 직접 읽는 '로빈슨 크루소'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결국 홍종락 선생이 번역하고 생명의말씀사에서 출간한 <로빈슨 크루소>를 구입해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다.

원제는 '요크 시 태생의 선원 로빈슨 크루소의 생애와 가졌고 놀라운 모험(The Life and Strange Surpris-

ing Adventures of Robinson Crusoe of York·1719)'이다. 대개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에 대해, 파선하여 표류하다 무인도에 도착하여 살아가는 '생존기' 쪽으로 이해한다. 어린 시절 보았던, 어린이용 편집된 동화나 만화의 경우가 그랬다.

그러나 저자인 대니얼 디포는 책을 전혀 다른 의도에서 저술했다. 대니얼 디포가 살았던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반은 과학과 기계 문명이 빠르게 발달하던 시기였고, 영국의 영향이 점점 강대해지기 시작했던 때이다.

디포는 1660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장로교도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뉴잉턴 그린에 있는 학교에서 수학했다. 공부보다 상업에 흥미를 갖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채 18세부터 장사를 시작한다. 영국의 혹독한 겨울에 따뜻한 양털을 팔아 큰 성공을 거둔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그는 신앙을 거의 잃다시피 하고, 부와 명예를 좇는다.

그러다 독재자 제임스 2세를 타도하는 몬머스 반란군에 가담하다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살아난다. 다시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고, 1688년 왕위에 오른 윌리엄 3세와 친분을 쌓아 정치적으로도 성공한다. 그러나 다시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에게 쫓겨 다니다.

근면한 디포는 다시 벼룩 사업에 돈을 대면서 큰 돈을 번다. 꾸준한 글쓰기를 통해 시사 문제를 다루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성공도 함께 이루어낸다. 당대 정치 현안들에 큰 영향을 끼쳤고 국교 외에 어떤 종교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고교회파'를 비난하는 <비국교도를 다루는 가장 손쉬운 방법(1702)>을 통해 비국교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풍자한다. 1704년에는 정치 신문을 창간하면서 기자로 활동하고, 스파이 팸플릿 작가 등으로 정치에 발을 디딘다.

결국 권력자들의 미움을 산 그는 악명 높은 뉴게이트 감옥에 들어가야 했다. 번성하던 사업도 풍비박산 나고, 가족들도 굶어 죽을 정도의 빈곤 상태에 빠지고 만다.

그의 삶은 마치 항해하는 배와 같

다. 순탄하고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 시간도 있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해 파선(破船)하여 죽음에 직면하기도 한다. 성공과 실패, 전진과 후퇴를 경험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삶의 여정을 고독한 무인도에 표류하는 존재로 오롯이 담아냈다.

환갑을 일 년 남겨둔 1719년, 그 유명한 <로빈슨 크루소>를 발표하여 일약 대작가의 반열에 오른다. 첫 소설이자 최고의 작품이 되어, 조나단 스위프트(Jonathan Swift)의 <걸리버 여행기>와 더불어 당시 영국을 대표하는 작품이 된다.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은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걸리버 여행기에서도 나타나듯 당시 소설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인 양 소개하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했다.

당시에는 '셀커크'라는 선원이 배가 파선하여 무인도에서 5년 동안 살다가 구조된 사건이 있었다. 이는 큰 화제가 되어 영국인들의 입에 올랐다. 디포는 셀커크 사건에 상상력을 동원하여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을 작품화한다. '걸리버 여행기'에서도 나타나지만, 당시 영국은 왕의 권위를 벗어나려는 중산층의 움직임이 점점 드세게 일어나는 시기였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비판하고,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통해 자신들의 시민사회를 꾸무는 이들이 많아졌다.

디포가 설정한 무인도는 사람이 없는 섬의 개념을 넘어선다. 국가의 간섭이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국가이다. 영국에 청교도운동 실패 후 분리파 청교도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뉴잉글랜드로 건너갔고, 온건파 다수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렇다고 시민정신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신세계를 꿈꾸었고, 왕이 아닌 시민이 다스리는 민주국가를 만들기를 원했다. 시민정신을 주도한 종교는 비국교도들이었으며, 그 핵심에는 칼빈의 종교개혁 영향으로 형성된 장로교회가 있었다. 대니얼 디포는 장로교도로서, 시민정신을 주도한 핵심이었다.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간과한 사실

은,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의 경험을 통해 깊은 신앙으로 나아갔던 점이다. 국가에 위탁된 신앙이 아닌, 경험과 스스로의 힘으로도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로빈슨 크루소는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1659년에 마무리됐던 에스파냐 무적함대 격파 사건과,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신대륙에 대한 희망과 무역 발달, 노예제도에 대한 신앙 양심의 문제 등이 작품에 스며들어 있다.

이 시기는 항해술의 발달이 혁명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다. 소설 곳곳에 '위도 몇 도'라는 문장들이 발견된다. 선장과 함께 해도를 조사하여 서인도제도의 바베이도스를 15일 정도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진로를 바꾸는 이야기도 나온다. 세계일주가 보편화되고 아프리카와 신대륙 등을 오가며 노예와 상품을 사고 파는 이야기가 시대 배경을 장식한다. 중상주의(重商主義)를 지향했던 시민사상이 깊이 스며 있다.

영국 국교와 왕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걸리버 여행기'는 금서(禁書)로 지정되었지만,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은 금서까지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작품은 은연 중에 국교와 사제 중심의 교회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타자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도 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독립적 존재로서의 인간상을 그린다. 평민과 귀족의 신분 차별을 타파(打破)하고, 스스로의 노동으로 부와 물질을 축적하는 중상주의를 옹호한다.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은 더 이상 무인도에서 살아남은 생존(survival) 게임이 아니다. 시대를 혁명적 사고로

해석하고 새롭게 정립하려 했던 혁명가의 이야기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신앙 고백록으로 읽어야 한다.

로빈슨 크루소를 통해 디포가 자신의 신앙고백을 담아낸 문장을 옮겨 본다(홍종락 선생이 번역한 생명의말씀사 판에서 인용하였다).

"나는 모든 선원이 가는 길로 갔다. 술이 나왔고 마시고 취했다. 그리고 하룻밤의 방탕함과 함께 전날의 모든 회개와 결심도 잊어 버렸다."(41쪽)

"가끔은 하나님이나 친히 창조하신 자들을 왜 이런 식으로 철저히 망가뜨리실까 의문이 들었다. 하나님은 왜 이렇듯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하고 우울한 신세로 만드셔서 감사하기 어렵게 하시는 걸까?"(75쪽)

"그날 하루, 이 외로운 처지에서라도 사람과 교제하고 세상 모든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겸허하게 진심으로 감사했다."(101쪽)

"사악하고 완고했던 과거의 생활 때문에 난과된 후 한동안은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관대하게 대해 주셨고, 나의 불법에 비할 때 한없이 가벼운 벌을 내리셨고, 쓸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음을 알 수 있었다."(108쪽)

정현욱 목사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로고스서원 연구원, 부산극동방송 <책과 음악의 행복한 만남> 진행, 부산반석교회 부목사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김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김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액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HAND MEN AVAILABLE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 선반 전문 회사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찜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닝정비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편방

고기만두

김치만두

야채만두

물만두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CHI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편강환”



서효석 박사 연구팀이 폐의 기운을 복돋운 결과, 폐질환은 물론, 피부질환까지 그 효능이 탁월해서 전세계인에게 보급시키고자 미국에 상륙시킨 편강환!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증상들

- * 목 감기(편도선염)
- * 기관지 확장
- * 코감기 및 비염
- * 폐기종
- * 기관지염 및 천식
- * 폐성유학
- * 어린이의 감기 예방
- * 폐렴
- * 아토피성 피부염
- * 기미,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치매는 치매탕으로

특징

1. 인지기능을 상승시켜주는 아세틸콜린 농도 증가
2. 굳어지는 혈액을 풀어주는 PLASMIN 활성화된다
3. 치매의 원인이 되는 B - AMLYOID를 제거
4. 뇌세포를 파괴하는 산화스트레스 제거
5. 뇌의 혈류를 촉진시켜 영양과 산소 공급 증가
6.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1. 치매환자에게서 뛰어난 인지능력 개선효과와 기억력이 검증되었다
2. 뇌세포를 파괴하는 B-AMLYOID를 정상수준으로 유지되었다
3. ANTI-PLASMIN의 작용으로 혈액응고를 풀어주어 정상 수치 유지됨을 보았다
4. 영증반응의 조율기능이 향상되었다
5. 혈관 확장 능력의 회복과 혈액 흐름의 증가가 현저하게 개선됨을 보았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4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GMU)

전문인 선교사(BAM)가 되고 싶으십니까?
선교학을 공부하시고 싶으십니까?
선교사가 되는 길을 찾으십니까?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가 도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명을 가진 귀한 분들을 모십니다.
GMU의 선교학 석사 과정은 TRACS의 인가를 받은 정식 학위입니다.
이제는 비즈니스를 통하여 선교를 하는 Business As Mission의 시대입니다.

선교학 석사 (MAICS) 과정 신설!!

2014년 1월 30일 개강(신입생 모집중)

선교학 석사과정 입학 안내 (Master of Arts Intercultural Studies)

www.gm.edu

성경 신학(Biblical Theology) : 15Unit Hours (5과목)

- 성경개론 (Intro. To the Bible)
- 신약학과정 (New Testament Courses) 중 택1
- 구약학과정 (Old Testament Courses) 중 택1
- 조직신학과정 (Systematic Theology Courses) 중 택2
- 복음서 (Gospels),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Acts & Pauline Epistles), 일반서신(General Epistles)
- 모세오경 (The Pentateuch), 역사서/지혜서(Historical Books & Wisdom Lit.)
- 조직신학 I (Systematic Theology I), 조직신학 II (Systematic Theology II), 조직신학 III (Systematic Theology III)

실천신학 (Practical Theology & Integration) : 18 Unit Hours (6과목)

- 선교학 (Mission Theology)
- BAM 신학적배경 (Theological Foundation of BAM)
- 통전적 선교전망 (Holistic Mission Perspective)
- 선교역사와 BAM (Mission History & BAM)
- 졸업세미나 (Integrative Exit Seminar)
- 실천신학 (Practical Theology) 중 택1
- 셀/교회개척 (Cell & Church Planting), 리더십과 행정 (Leadership & Administration), 다문화 목회 (Cross-cultural Ministry)

경영학 분야 (Business Professional Studies) : 15 Unit Hours (5과목)

- 회계 (Accounting) - 기획 (Planning) - 마케팅 (Marketing) - 관리 (Management)
- 회사 설립 (Founding of Business) 또는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입학안내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GMU)

Tel : 714-525-0088 Fax : 714-525-0089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E-mail : gm@gm.edu



“ 은혜 가운데 잘 은퇴하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본이 되고 섬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식 목사-

북미주 전역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은퇴의 인사를 올립니다. 베델한인교회 23년 목회를 지난 12월 31 일로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하나님께서 택해주신 후임 김한요 담임 목사님에게 멋진 바톤 채인지를 이루고 떠났습니다. 앞으로 일절 베델한인교회 목회에 관여치도 않고 출입하지도 않으며 후임 목사와의 교류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힘을 다해 섬긴 베델한인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길인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북미지역 모든 목사님들께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 1** 베델한인교회 및 북미지역 한인교회들의 공동파송 선교사로서, 북한의 해방과 북한동족들의 구원을 위한 "그날까지 선교연합" (Until The Day - UTD)의 풀타임 북한 선교사로 달려갈 것입니다.
- 2** 북미주 한인교회의 젊은 목회자들에게 디아스포라 교회 목회 멘토링을 인도하며 각 교회들의 교회 성장과 부흥을 이루기 위한 설교, 성장형 목회관 및 태도, 평신도 리더 다루기 등의 훈련을 멘토와 멘티의 관계설정을 통해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 세미나를 주최하며 각 도시를 순회하게 됩니다.
- 3** 지금까지 23년 동안 약 1200번 이상의 설교와 50만개 이상의 설교 테이프 및 CD보급을 통해 펼쳐온 말씀 사역을 지속하며 북미주 각 지역 교회들의 부흥회 인도, 베델동산 등의 영성집회 인도, 그리고 주일 강단의 설교 요청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동안 사양해 온 사정을 이해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날까지 선교연합 (UTD) 국제대표:
손인식 목사 (베델한인교회 은퇴목사, 파송선교사)
공동대표:
박희민 목사, 이원상 목사, 송정명 목사, 김인식 목사

[부흥회 및 주일 강단 요청시 연락처]

❖ **우편함 주소:** 2312 Park Ave. #228
Tustin, CA 92782

❖ **연락처:**

손인식 목사 전화: **949-939-6865**
Email: shik1981@yahoo.com
문성범 행정실장 전화: **213-880-3455**
Email: utdusa21@gmail.com

◆ 손인식 선교사 후원교회 수락서 ◆

지금 북한은 분단 68년 중 최악의 내부 분열과 붕괴의 조짐을 보이는 증대한 한반도 상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들이 기도해온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복음통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강렬한 믿음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금번 북한의 해방과 북한동족의 구원을 위해 새 출발하는 손인식 북한 선교사에게 기도와 마음을 합해주는 계기가 되도록 아래 후원교회 수락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요. 함께 북한해방 및 임박한 북한교회 회복운동에 기도로 동참하여 상징적으로 월 백불의 후원교회가 되어주시는 결단입니다. 큰 힘을 얻으며 북미주 한인교회들을 대신하여 뛰겠습니다.

손인식 목사 저서가 출판되었습니다.

돌탕목회 이야기 1 - 이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돌탕목회 이야기 2 -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 '돌탕'은 돌아온 당자를 줄인 말이다. 떠난 탕자와 덜 돌아온 탕자들이 돌탕이 되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에 관심을 쏟는 저자는 베델한인교회를 섬기며 나눈 은혜를 책으로 펼쳐놓았다. 돌탕들이 주님의 참된 아들인 중인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민목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베델한인교회의 자취를 함께 엿볼 수 있는 이 책에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온 아들의 회복이 잔잔하게 흐른다.

손인식 저음 456면 | 콜린출판사

교회이름: _____

담임목사: _____

교단: _____

주소: _____

전화/이메일: _____

후원: 기도후원 약속과 매월 100불 후원금

*손인식 선교사 후원 수락서는 위의 우편함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